



20 Years of Classical Music
April 2009

Naxos new releases



8.57208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바실리 페트렌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2051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관현악편곡,
교향곡 8번 '미완성' 4악장
완결 버전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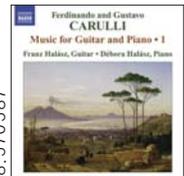
8.570440

리스:
피아노협주곡 7번, 롤 브리
타니아 주제의 대변주곡,
서주와 변주곡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우베 그로트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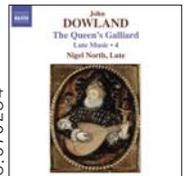
8.570563

텔레만: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판타지
아우구스틴 하델리히(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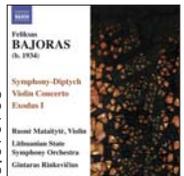
8.570582

F. 카롤리 & G. 카롤리:
기타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프란츠 할라스(guitar)
데보라 할라스(pf)



8.570284

다울랜드:
루트 작품집 Vol.4
(Queen's Galliard)
나이젤 노스(lute)



8.570758

바요라스:
교향곡 2부작, 바이올린
협주곡, 엑소더스 1
루즈네 마타이티데(vn)
긴타라스 린케비치우스
리투아니아 국립 교향악단



8.570929

마르투치:
교향곡 1번, 지가, 칸초네
타, 야상곡 1번, 안단테
프란체스코 리 베키아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0328

슈미트:
교향곡 1번, 노트르담 중
전주곡, 간주곡, 카니발
음악
바실리 시나이츠키
말뵈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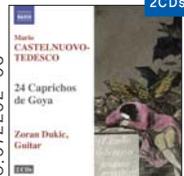
8.559398

레쉬노프:
바이올린협주곡,
현악사중주 1번
찰스 워더비(vn)
마켄드 타카
볼티모어 챔버
카르페 디엠 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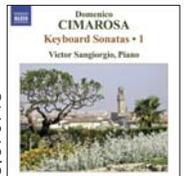
8.559610

셴:
레드 실크 댄스, 테벳 스
영, 피닉스, 훈
브라이트 셴(pf)
제러드 슈워츠
시에를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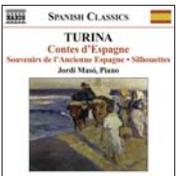
8.572252-53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24개의 고야 카프리치오
전곡
조란 두키츠(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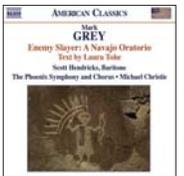
8.570718

치마로사:
건반소나타 Vol.1
빅토르 산조르조(pf)



8.570370

투리나:
스페인 이야기 1,2권,
옛 스페인의 추억, 실루엣
호르디 마스(pf)



8.559604

그레이:
나바호 오라토리오 -
enemy slayer
스코트 헨드릭스(br)
마이클 크리스티
피닉스 심포니 오케스트
라와 합창단



8.570950

스카를라티:
지옥의 유리디체,
첼로소나타 2번, 성모수태
아르스 리리카 휴스텐



8.660215

라벨:
어린이와 마술, 세헤라자
데
줄리 불리앙(ms)
알래스타어 윌리스
내시빌 심포니와 합창단



8.669020-21

하겐:
Shining Brow
여러 가수를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과 합창
단



8.11331

드보르작:
슬라브춤곡, 카니발서곡
바츨라프 탈리히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



8.112020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발라드 3번
슈만: 카니발 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pf)



8.110119-20

베르디:
시몬 보카네그나
티토 고펬비
보리스 크리스토프
데 로스 앙헬레스
가브리엘레 산티니
로마 오페라



8.111329-30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집시남작
슈바르츠코프,
게다, 쿤츠, 프라이
오트 악케르만
필하모니아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6호 | March 2009



Hot Issue

차세대 영상매체 Blu-ray 최신보들

Cover Story

2008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DVD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탄생 100주년 감동의 2008 기념 콘서트

베를린 필, 소피 무터, 세이지 오자와 세계 일급 음악가들과 함께 만난 콘서트

카라얀 악단, 그리고 거장이 가장 좋아했던 두 음악가들이 올린 2008년 추모 콘서트
 카라얀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라며 키웠던 안네 소피 무터가 연주하는 베토벤 협주곡
 카라얀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자 세이지 오자와
 카라얀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토벤 바이얼린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 중후한 레퍼토리 비창 교향곡



© ORF / Milenko Badzic



《 2008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
 안네 소피 무터(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edici Arts DVD 2072518
 Blu-ray 2072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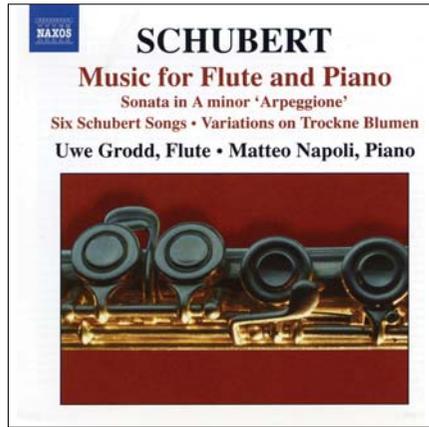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 '지휘의 황제', '지휘자의 대명사', '지휘의 신' 등 이 세상 음악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사와 수식으로 존경받았던 카라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8년 콘서트를 담은 영상물이다. 장소는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페라인잘. 유서 깊은 빈의 음악 홀이지만 오케스트라가 카라얀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이라는 점이 오묘한 정서를 환기하며 눈길을 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카라얀이 가장 아끼던 두 명의 음악가가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1963년생의 안네 소피 무터는 잘 알려진 대로 13세의 어린나이에 카라얀의 오디션을 받은 후 '매뉴히 이후 최고의 천재'라는 거장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바이올리니스트다. 베를린 필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이 낳은 대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카라얀의 애 제자였다. 오자와는 카라얀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운 제자로 생각했었다고 늘 기쁨으로 술회하곤 했었다.

보나마나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 너무도 감동적인 '영광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 영상물을 DVD로 만나 볼 날을 손꼽은 애호가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이미 2008년 5월경부터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계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카라얀이 '분더킨트', 즉 천재라고 높이 치켜세웠던 무터는 이제 45세 원숙한 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느린 악장에서 보여주는 지극히 우아한 톤과 모든 완전한 기술, 그리고 심연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정서의 깊이에 청중들이 숨죽이며 몰입해있는 광경이 마치 성찬을 치르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처럼 경건하기 이를 데 없다. 오자와의 지휘도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통제하던 카라얀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긴밀함을 보여준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영상물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아닐까 싶다. 베토벤의 협주곡이 끝난 후 무터가 잠시 독일어로 인사하고 곧바로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2번의 사라방드를 연주하며 7분에 이르는 독무대를 이끈다. 베를린 필과 73세 노장 오자와가 홀에 있는 청중들을 마지막으로 흠뻑 울리는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교향곡이다. 물론 카라얀이 베스트 레퍼토리 중의 하나다. 독일의 디 벨트(Die Welt)지는 이 감동적인 콘서트를 '추억의 소리'라고 했는데, 감상하고 있는 내내 대중적 레퍼토리를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 제공했던 카라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 관악기 현악기 할 것 없이 베를린 필의 앙상블은 정말 섬세하기 이를 데 없다. 2008년 최신 영상물이라서 너무도 맑고 깨끗한 화면에, 엄청난 해상도의 음향을 제공한다. 보너스 트랙에는 무터와 오자와가 카라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Naxos

www.naxos.com



8.570754
슈베르트: 플루트를 위한 편곡들 (아르페지오네소나타와 가곡들)
우베 그로트(fl)/ 마테오 나폴리(pf)

슈베르트는 당대의 플루트 비르투오소 페르디난트 보크너를 위해 자신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의 선율을 차용한 변주곡을 완성하였다. 여기에 근대 플루트의 아버지인 테오발트 뵘이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겨울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중 6곡과, 연주자 우베 그로트가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아르페지오네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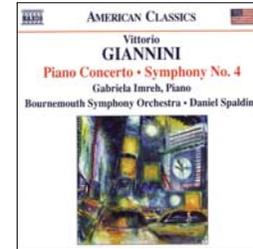
8.570743
리스: 피아노소나타 Op.1-1,2 소나티나 Op.5-1,2
수잔 케이건(pf)

베토벤의 친구이자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는 한동안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점차 그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그가 남긴 피아노작품들은 슈베르트의 명쾌한 화성,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 쇼팽의 화려함을 예비하는 듯 하다.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소나타는 스승 베토벤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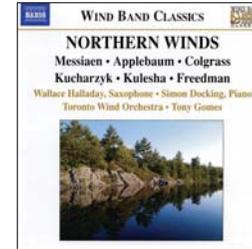
8.570747
클라라 슈만: 가곡 전집
도로테아 크렉스톤(sop)
헤다에트 메디카르(pf)

클라라 슈만은 뛰어난 피아노 비르투오조였을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작곡가였다. 그가 남긴 가곡들은 종종 남편의 것으로 오해될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본 음반에는 로베르트와의 결혼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인 1853년까지 그가 완성한 가곡 모두가 수록되었다. 소박한 프르테피아노 반주 위로 펼쳐지는 도로테아 크렉스톤의 아가자기한 가창은 클라라의 섬세한 감수성을 훌륭히 대변한다.



8.559352
잔니니:
교향곡 4번, 피아노협주곡
가브리엘라 임레(pf)/ 다니엘 스팔딩/ 본머스 심포니

미국 낭만주의 계열의 작곡가 비트리오 잔니니는 존 코를리아노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밀라노 음악원에서 음악을 배운 이후 귀국하여 줄리어드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이후 노스 캐롤라이나 음악원을 설립하여 미국 남부의 명문으로 성장시켰다. 라흐마니노프를 빼놓은 피아노협주곡과 감성적인 중간 악장이 인상적인 교향곡 4번은 낭만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작곡가의 음악 스타일을 대변하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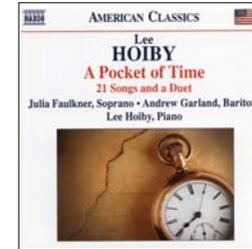
8.572248
관악을 위한 작품들
(메시아, 콜그래스, 쿠차르치, 프리드만, 애플바움)
토니 오메즈/ 토론토 관악 오케스트라

피아노독주와 관악기 & 타악기 앙상블을 위한 메시아의 작품인 '이국의 새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록곡은 모두 캐나다의 정상급 현대작곡가들의 작품들이다. 재즈 드라마 출신 작곡가인 콜그래스의 '드림 댄서', 영화 및 방송 음악 작곡가의 애플바움의 행사용 서곡 'High Spirit', 캐나다 거주 프랑스인들의 포크송에 기반을 둔 해리 프리만의 모음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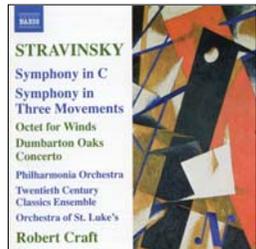
8.570766
로시니: 피아노작품집(현명한 어린이들을 위한 앨범 발매)
알레산드로 마란고니(pf)

로시니는 생의 마지막을 파리에 서 보내면서 13권 분량의 피아노 소품들을 완성하였다. 그는 이 작품집에 '노년의 잘못들'이라는 장난스런 제목을 붙였지만, 작곡가의 유쾌한 천성과 음악적 재치가 고스란히 배어든 작품들이다. 그 중 6권에는 '현명한 어린이들을 위한 앨범'이라는 소재목이 달려있다. 슈만, 차이코프스키, 드뷔시의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걸작들에 비견될 만한 매력만점의 작품들이 담겨있다.



8.559375
호이비: 성악작품집
줄리아 포크너(sop)/ 앤드류 갈란트(bar)/ 리 호이비(pf)

미요와 메노티를 사사했던 리 호이비는 성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미국 작곡가이다. 메노티의 영향 아래서 여러 편의 오페라를 완성하였으며, 가곡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서정적인 성악 선율과 기교적인 피아노 반주가 적절히 어우러진 그의 가곡들은 보수적인 조성음악의 틀 속에서 때론 슈베르트처럼 서정적으로, 때론 베르디처럼 극적으로 텍스트의 시상을 적절히 드러내고 있다.



8.557507
스트라빈스키: 3악장 교향곡, 교향곡 C장조, 8중주 외
로버트 크래프트/ 필하모니아,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20세기 클래식 앙상블

3악장 교향곡과 교향곡 C장조는 신고전주의 시대의 스트라빈스키를 대표하는 걸작들이다.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활기찬 리듬과 고전주의의 정형적인 틀이 멋지게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린 작품인 8중주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협주곡의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완성한 마지막 작품인 협주곡 '덤바턴 오크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0328
슈베르트: 서곡(겨울기사, 살라만카의 친구, 4년 초병복무 외)
크리스티안 벤티다/ 프라하 신포니아

슈베르트는 미완성작까지 포함 10여곡의 오페라를 남겼다. 본 음반에는 첫 오페라 완성작인 '악마의 별장'을 비롯, '살라만카의 친구들', '4년 초병복무', '빌라 벨라의 클라우디네' 등의 오페라용 서곡들, 10대 초반의 희귀작들인 '기술자 악마', '겨울 기사', 그리고 연주회용 서곡들이 수록되었다.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 아니지만, 십대 소년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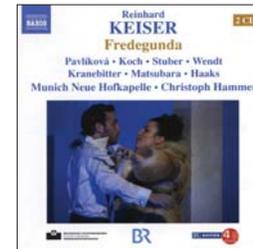
8.572059
브랑코: 교향곡 2번, 인공낙원, 게라 중계이로를 읽고 나서
알바로 카수토/ RTE 국립 교향악단

루이스 데 프레타스 브랑코(1890-1955)는 20세기 전반기 포르투갈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교향곡 2번은 그레고리안 찬트의 선율과 프랑크 풍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접목한 작품으로, 특히 스케르초는 브루크너를 떠올리게 한다. 교향시 '게라 중계이로를 읽고'는 R 슈트라우스의 '틸 오이렌슈피겔'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며,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곡인 '인공낙원'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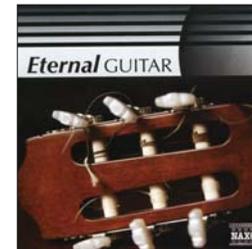
8.570601
셴: 봄의 꿈, 3개의 환타지, 티베트 춤곡
초량린(vn)/ 충 예/ 싱가포르 중국 전통악기 오케스트라 외

중국계 미국 작곡가 브라이트 셴은 동양의 음악적 요소와 서구의 음악기법을 훌륭히 접목시켜왔던 작곡가다. '봄의 꿈'은 바이올린 독주와 중국 전통악기 악단을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으로, 중국 전통악기들의 독특한 소리를 통해 펼쳐지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티베트와 카자흐 전통음악을 차용한 3개의 환상곡,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티베트 춤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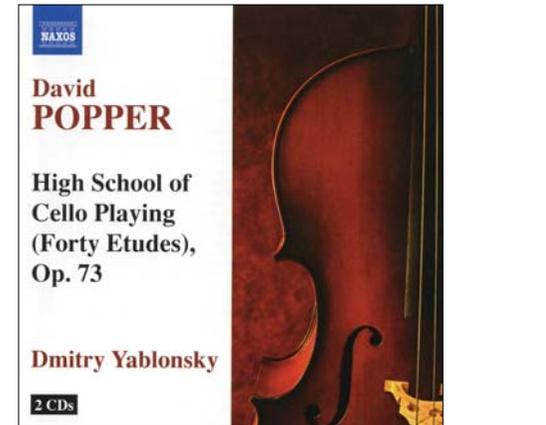
8.660231-32 [2CDs]
카이지: 오페라 <프레데군다>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프 함머/ 뮌헨 노이에 호프카펠레

라인하르트 카이지는 생전에 헨델이나 텔레만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프레데군다'는 그의 가장 인기 오페라의 하나였다. 6세기 프랑크의 왕 킬페리히와 마법의 힘을 빌려서 왕비 자리를 노리는 정부 프레데군다의 애증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로, 풍부한 선율미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독일 바로크 오페라의 걸작이다. 뮌헨 프리츠레게텐 극장 공연 실황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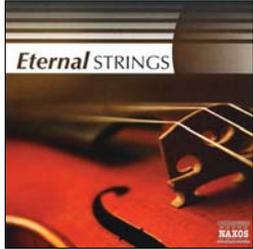
8.572182
Eternal Guitar
타레가, 소르, 빌라로보스, 바흐, 로드리고, 알베니스, 비발디, 오베트 외

비발디의 협주곡 RV93의 2악장과 트리오소나타, 바흐 하프시코드협주곡 BWV974의 기타 편곡, 로드리고의 소나타 조코사의 일부, 타레가의 그란 발스와 수에노, 소르의 연습곡, 알베니스의 마요르카, 오베트의 스케르초와 왈츠, 코스테의 요한 슈트라우스 왈츠, 빌라로보스의 소로스 1번 중 티피코, 토로바의 소나티나 등 고금의 기타 명곡들을 담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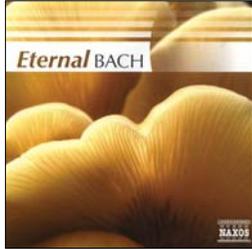


8.557718-19 [2CDs]
포퍼: 무반주 첼로를 위한 고등 연습곡들 Op.73
드미트리 아블론스키(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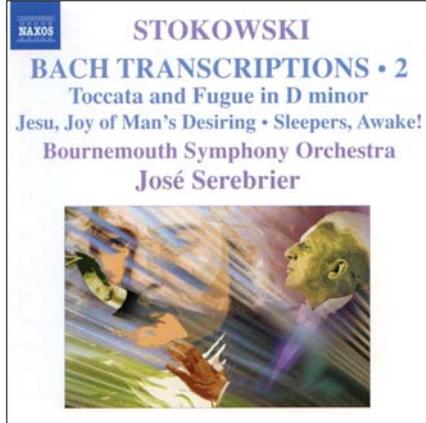
다이비트 포퍼는 동시대의 리스트가 피아노를 통해 이루었던 업적을 첼로를 통해 구현했던 거물 연주자 겸 명교사였다. 무반주 첼로를 위한 40곡의 연습곡들로 구성된 '첼로 연주를 위한 고등 연습곡'은 첼로 연주자들의 필수교본으로 인식되어왔던 작품집이다. 파블로 카잘스가 '이 악기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했을 정도로 첼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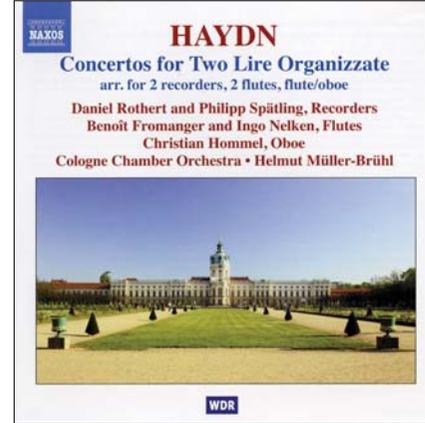
8.578027
Eternal Strings
 바버, 수크, 드보르작, 구레츠키, 페르트, 차이코프스키, 글래스, 그리그 외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필립 글래스의 바이올린협주곡 2악장, 수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아다지오,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라르케토, 펜데레츠키의 폴란드 레퀴엠 중 사콘느, 구레츠키의 3개의 옛 스타일 소품 중 3악장,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1악장, 페르트의 프라트레스 등 현 앙상블을 위한 인기곡들을 총망라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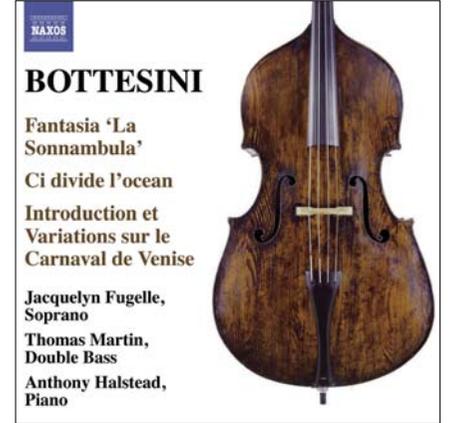
8.578024
Eternal Bach
 various artist
 평균율 1권 중 전주곡 C장조,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수첩 중 미뉴엣, 브란덴부르크협주곡 하이라이트, 관현악모음곡 2번 발췌, 오보에협주곡 BWV1060 중 알레그로, 마태수난곡 일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중 알레그로, 트리 오 소나타 2번 중 비바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비바체 등 바흐의 인기선율들을 가득 담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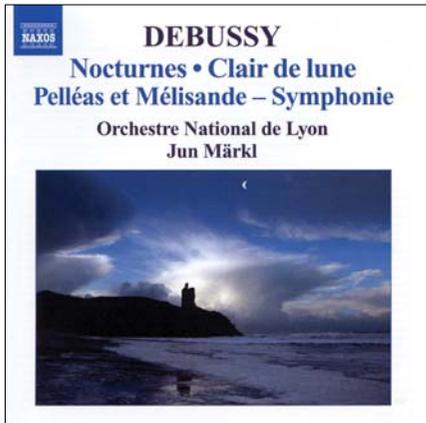
8.572050
바흐-스토코프스키: 관현악편곡들 (바흐, 하이든, 보케리니 외)
호세 세레브리에르/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토코프스키가 모던 오케스트라 편성을 위해 편곡한 바흐의 작품들을 담은 두 번째 음반. 유명한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있어', '내 주는 강한 성',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시실리아노'와 같은 주옥같은 바흐의 선율들이 스토코프스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펼쳐진다. 클라크의 '봉헌', 보케리니의 '미뉴엣', '하이든의 '안단테 칸타빌레'와 같은 친근한 곡들의 편곡도 함께 수록되었다.



8.570481
하이든:
두 대의 리르 오르가니자테를 위한 협주곡(플루트 및 리코더 편곡)
다니엘 로터트, 베노와 프로망게르, 잉고 넬켄 외/ 헬무트 뮐러-브뤼hl/ 쾰른 챔버
 리르 오르가니자테는 거리악사들의 손풍금과 첼버오르간을 혼합한 형태의 악기로, 하이든은 이 악기를 특히 좋아했던 나폴리의 페르디난트 4세를 위해 5개의 협주곡을 작곡했다. 본 음반에는 오리지널 악기 대신 플루트, 리코더, 오보에, 호른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연주에 활용하였다. 쉽게 감상하기 어려운 작품들이지만, 하이든 특유의 낙천적인 기운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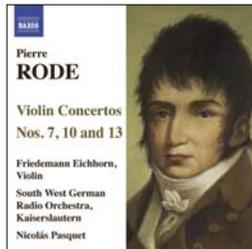
8.570400
보테시니:
몽유병여인 환상곡, 베니스축제변주곡, 알라 쇼팽, 바흐 편곡 외
토마스 마틴(db)/ 안소니 할스태드(pf)/ 재클린 푸겔(sop)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리던 조반니 보테시니는 이 거대한 악기가 멋진 독주악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준 음악가였다. 본 음반에는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의 선율을 차용한 환상곡, 유명한 베니스의 카니발 선율에 의한 전주곡과 변주곡, 쇼팽 풍의 카프리치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의 편곡, 스코틀랜드 민요 'auld robin gray' 선율에 의한 변주곡 등이 수록되었다.



8.570993
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심포니, 야상곡, 월광 외
윤 메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드뷔시의 대표관현악곡 중 하나인 '야상곡'은 바다에 비친 구름의 이미지, 브와 드 블로뉴의 축제, 사이렌들이 부르는 유혹의 노래를 각각 표현한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다. 작곡가의 유일한 오페라의 선율을 갈무리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심포니, 앙드레 카를레가 편곡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월광', 미카엘 자벨이 편곡한 3개의 연습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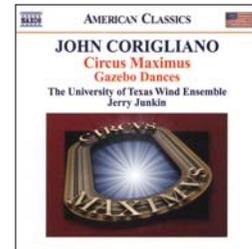
8.578025
Eternal Arvo Part
 various artist
 현을 위한 숨마, 타볼라 라사 중 루두스, 베를린 미사 중 키리에와 아뉴스 데이, 바흐 콜라주 중 토카타, 요한 수난곡 일부, 프라트레스, 심연에서, 나는 참된 포도나무, 교향곡 3번 중 2악장, 현과 종을 위한 벤자민 브리튼을 추억하는 칸투스 등 에스토니아 출신의 신비주의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대표곡들을 담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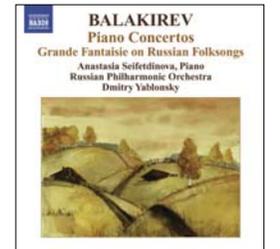
8.570469
로드: 바이올린협주곡 7,10,13번
프리데만 아이호른(vn)/ 니콜라스 파스쿠엣/ 카이저스라우테른 SWR 방송
 비외티의 제자인 피에르 로드는 19세기 초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다. 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는 파가니니의 작품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화려한 초절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바이올린협주곡들도 13곡이나 남겼다. 특히 협주곡 7번은 비에니아프스키가 특히 사랑했던 작품이며, 파가니니 역시 이 작품을 즐겨 연주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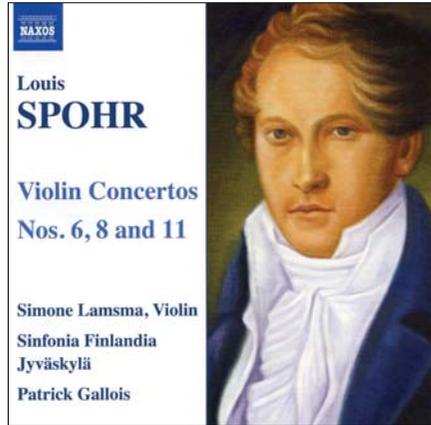
8.570897
모차르트: 프리메이슨을 위한 음악 전곡
허영훈(te)/ 로베르트 파터노르스토/ 카젤 슈퍼어 챔버 오케스트라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마술피리'와 같은 작품을 통해 이 단체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작품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단체의 행사를 위한 작품들도 완성하였다. 특히 칸타타 '우리 기쁨을 높이 알려라' KV623은 그가 죽기 3주전 소속 지부 건물 헌정식에서 그가 직접 지휘를 맡았던 작품이다. 카젤 주립극장 멤버로 활약중인 테너 허영훈이 독창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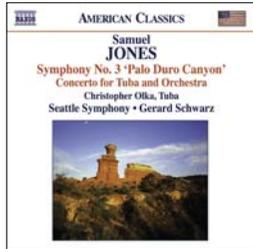
8.559601
코릴리아노: 교향곡 3번 '시르쿠스 막시무스', 가제보 댄스
제리 전킨/ 텍사스 대학 관악양상블
 시르쿠스 막시무스는 3만명을 수용했던 고대 로마의 거대한 원형경기장이었다. 로마시민들은 이 곳에서 끊임없이 펼쳐진 전차경주나 검투사들의 혈투에 열광했다. 코릴리아노는 TV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현대의 각종 오락거리들을 고대 로마의 시르쿠스 막시무스에 비유하면서 본 작품을 작곡하였다. 가제보 댄스는 4손을 위한 피아노작품이었지만, 관악밴드를 위한 작곡가 자신의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8.570396
발라키레프: 피아노협주곡 1,2번,
러시아 민요 대환상곡
아나스타시아 세이페치노바(pf)/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 필하모닉
 발라키레프는 러시아 5인조의 리더로 유명함에도 정작 그의 작품은 '이슬라메이' 정도만이 잘 알려져 있다. 발라키레프가 남긴 두 피아노협주곡은 그가 작곡가 이전에 앞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는 동료 린스키코르사코프의 회고를 증명해준다. 협주곡 2번은 미완성작으로 남아있었으나, 후배 리아푸노프가 훌륭히 마무리지었다. 러시아 민요 선율에 의한 대환상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528
슈포어: 바이올린협주곡 6,8,11번
시모네 람스마(vn)/ 패트릭 갈로와/ 신포니아 핀란드아 위배스퀼레
 루이스 슈포어의 바이올린협주곡들은 비오티, 크로이처, 로드 등의 프랑스 바이올린악파의 초절교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빈 고전파 형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다. 2004년 브리튼 콩쿠르와 2005년 중국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시모네 람스마가 연주를 이룰 매력적인 초기낭만주의 바이올린협주곡들의 연주를 맡았다.



8.559378
존스: 교향곡 3번 '팔로 두로 캐년', 튜바협주곡
크리스토퍼 울카(tb)/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무엘 존스의 교향곡 3번은 텍사스 북부에 자리잡은 팔로 두로 캐년의 장엄한 경관을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의 튜바협주곡은 고급의 튜바협주곡들 중에서도 음악적으로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이 악기의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경험케 한다.



8.570555
야나체크: 오페라 모음곡(예누파, 브로우체크씨의 여행)
베사 마티 레파넨(vn)/ 페터 브라이너/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나체크의 오페라들은 이제 정상급 오페라하우스들의 단골 레퍼토리로 정착되어가는 추세다. 1904년에 초연된 '예누파'는 작곡가의 여러 오페라들 중에서도 단연 높은 인기를 누리는 걸작이다. '브로우체크씨의 여행'은 천체와 과거로 자유롭게 여행하는 신비한 인물을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오페라다. 페터 브라이너가 두 오페라의 유명선율들을 엮어서 관현악모음곡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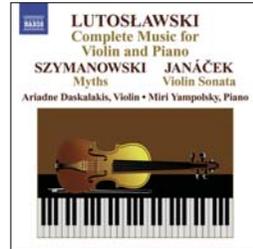
8.570519
모차르트: 피아노 삼중주 4-6번, KV.442
콩스바츠크 피아노 트리오
 모차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트리오 3작품은 작곡가의 창조력이 절정에 달했던 1788년에 완성된 것들로, 서정적인 멜랑콜리와 불임성 좋은 유쾌함이 공존하는 작품들이다. 쉽게 감상하기 힘든 KV.442는 단편만 남아있던 것을 모차르트의 친구 막시밀리안 슈타틀러가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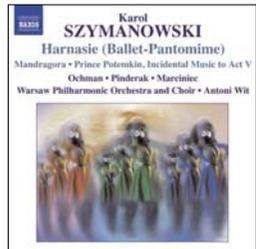
8.572240
코플랜드, 번스타인, 덩크워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엠마 존슨(cl)/ 존 레넬한(pf)
 ASV를 통해 다수의 음반을 발표했던 영국의 대표 클라리넷 연주자 엠마 존슨이 녹음을 통해 발표한 최신보 번스타인의 젊은 시절 작품인 클라리넷소나타는 재즈와 대중음악의 영향이 느껴지는 작품이며, 코플랜드의 클라리넷소나타는 바이올린소나타를 작곡가 자신이 편곡한 것이다. 영국 작곡가 존 덩크워스가 엠마 존슨을 위해 작곡한 '엠마를 위한 모음곡'은 베니 굿맨의 스윙에서 영감을 얻어서 완성한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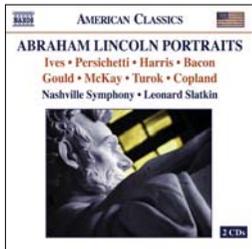
8.572074
토니: 바이올린소나타, 플루트소나타, 피콜로를 위한 전주곡 외
로나 윈저(sop)/ 엑스 노보 앙상블
 카밀로 토니(1922-93)는 달라피콜라, 마데르나와 더불어 20세기 이탈리아 음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30년대 신크르크의 음악을 접한 이후 신인악파 12음기법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 플루트소나타, 바이올린소나타, 기타와 첼로를 위한 소품,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5개의 소품, 피콜로를 위한 전주곡 등에서 기 존의 상념을 초월한 각 악기들의 새로운 소노리티를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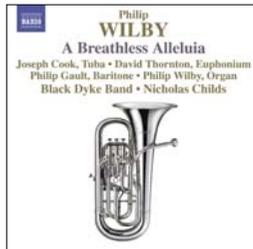
8.570987
루토슬라브스키: 파르티타, 야나체크: 바이올린소나타, 시미노프스키: 전설
아리아드네 아스칼라키스(vn)/ 미리 암플스키(pf)
 각각 폴란드의 근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인 시미노프스키와 루토슬라브스키, 그리고 모라비아 출신의 작곡가 야나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함께 담은 음반. 각자의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함께 비교해볼 수 있는 수록곡의 구성이 흥미롭다. 루토슬라브스키의 파르티타는 관현악반주 버전이 보다 유명하지만,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능밀한 호흡을 담은 오리지널 버전의 매력도 놓칠 수 없다.



8.570723
시미노프스키: 하르나시, 만드라고라, 포텐킨 왕자
비에슬라브 오흐만(te) 외/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시미노프스키의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색채의 작곡서법은 무대를 위한 극부수음악이나 발레작품에서도 큰 위력을 드러낸다. 발레-판토마임을 위한 '하르나시'와 극부수음악인 '포텐킨 왕자'는 남부 폴란드 타트라 산악 지대의 민속음악에서 음악적인 소재를 빌린 작품들이며, '만드라고라'는 몰리에르의 희극 '서민귀족' 중간에 삽입된 발레를 위해 작곡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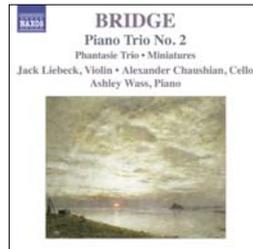
8.559373-74 [2CDs]
링컨 대통령을 그린 음악들
(아이브스, 해리스, 코플랜드, 맥케이 외)
레너드 슬래트킨/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아브라함 링컨을 소재로 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아이브스의 '위대한 하원의원 링컨', 퍼시체티의 '링컨의 연설', '해리스의 '한밤중에 산책하는 링컨', 베이컨의 '포드극장', 모턴 굴드의 '링컨 레전드', 맥케이의 '링컨 트라이뷰트', 터락의 '미국 노래 변주곡: 링컨과 자유', 코플랜드의 '링컨의 초상'을 2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8.572166
윌비: 파가니니변주곡, 에메이징 그레이스 변주곡, 유포니움협주곡
데이빗 소튼(euphonium)/ 니콜라스 차일드/ 블랙 다이크 밴드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 필립 윌비(1949년생)의 작품들을 담은 음반으로, 블랙 다이크 밴드와 지휘자 니콜라스 차일드에게 헌정된 'A breathless alleluia', 브라스 밴드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를 요구하는 '파가니니 변주곡', 유명한 찬송가 선율을 기반으로 한 '에메이징 그레이스 변주곡', 소형 튜바인 유포니움을 위한 협주곡 등이 수록되었다.



8.572109
목관밴드를 위한 음악
(그릭, 슈반트너, 바셋, 투린, 지프코비츠)
조셉 알레시(trb)/ 글렌 애드지트 / 하트 스쿨 관악앙상블
 타악기와 관악밴드를 위한 지프코비츠 협주곡 '지구 중심의 이야기'와 트럼본과 관악밴드를 위한 그릭의 협주곡 '파사기'는 각 악기를 전공했던 두 작곡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기교적 향연인 작품들이다. 반면, 바셋의 '커스틴을 위한 자장가'와 투린의 '노아를 위한 자장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성인들의 향수를 담은 서정적인 내용의 작품들이다.



8.570792
브리지: 피아노트리오 1,2번, 피아노트리오를 위한 소품
잭 리벡(vn)/ 알렉산더 차우시안(vc)/ 애슬리 워스(pf)
 프랑크 브리지는 브리튼을 배출한 명교사로 유명하지만, 실내악 작곡가로서 영국 근대음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초기작인 피아노트리오 1번과 피아노트리오를 위한 9개의 소품에서는 스승이었던 스탠포드를 연상케하는 후기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지만, 1928-9년에 작곡된 피아노트리오 2번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보다 원숙한 음악세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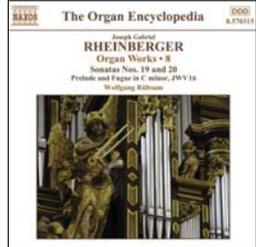
8.559363
카터: 현악사중주 2,3,4번
패시피카 현악사중주단
 패시피카 현악사중주단은 엘리엇 카터의 탄생 100주년이던 지난 2008년 작곡가의 현악사중주 전곡을 녹음하였다. 본 음반은 1,5번을 담은 첫 음반의 후속하는 4악기의 다양한 이중구조 조 합이 연속되는 형태의 3번, 이들 에 비해 정통적인 외형을 보여준다는 4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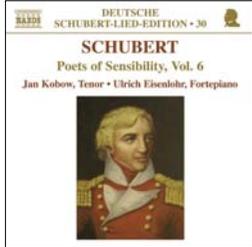
8.570550
아일랜드: 육중주, 클라리넷트리오, 판타지소나타, 홀리보이
로버트 플레인(cl) 외/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스탠포드의 제자였던 아일랜드는 프랑스와 같은 독일낭만음악과 드뷔시, 라벨 등의 프랑스 인상주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던 작곡가다. 그의 육중주는 브람스를 연상케 하는 낭만주의 성향의 작품이며, 클라리넷의 독특한 개성을 훌륭히 활용한 작품들인 클라리넷트리오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소나타, 그리고 연주자 플레인이 클라리넷을 위해 편곡한 작곡가의 대표 실내악곡인 '홀리보이'가 수록되었다.



8.572175
마르티누: 피아노작품집 vol.5
(폴카 1916, 5개의 왈츠)
조르조 쿠를(pf)
 유수의 전문지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조르조 쿠를의 마르티누 피아노 작품 시리즈의 5번째 음반. 본 음반에 수록된 두 작품은 최근 발견된 작곡가의 필사본에 담긴 것들로, 이 음반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특히 5개의 왈츠는 마르티누의 피아노작품으로는 극초기작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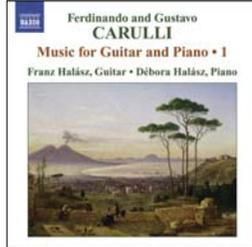
8.570315
라인베르거: 오르간소나타 19, 20번, 전주곡과 푸가 c단조 불프강 퀴브집(org)
 요제프 낭만시대 독일 오르간 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의 오르간 작품들은 바흐의 굳건한 전통 위에 슈만, 멘델스존, 리스트와 같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낭만적인 정서가 적절히 접목된 것들이다. 본 음반에는 '평화의 축제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소나타 20번과 프로방스 풍의 중간 악장이 인상적인 소나타 19번, 그리고 바흐의 전통을 계승한 전주곡과 푸가 C단조가 수록되었다.



8.570480
슈베르트: 감수성의 시들 Vol.6 양 코보프(te)/ 올리히 아이젠로어(fp)
 베레라이터의 신 슈베르트 리트 에디션에 의한 30번째 음반으로, 본 음반에는 스위스의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였던 요한 가우덴츠 폰 잘리스의 시에 곡을 붙인 14편을 포함하여 모두 23편의 리트들이 수록되었다. '봄의 절음', '가을 저녁', '멀리있는 연인에게', '어부의 노래', '외딴 집', '어린시절의 기쁨', '봄의 산', '선한 목자', '클로에에게', '사랑의 신들'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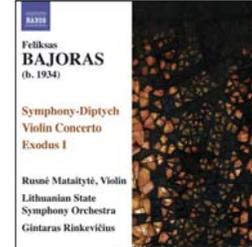
8.660227-28 [2CDs]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니네타 공주>
여러 가수들/ 발레리아 차니/ 스톡홀름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오페레타 '니네타 공주'는 음악계 데뷔 50주년 기념작으로 1893년 빈에서 초연되었다. 슈트라우스 특유의 친숙한 선율과 화려한 왈츠를 담은 매력적인 작품으로, 특히 '새로운 피치카토 폴카'가 유명하다. 초연 이후 76회나 공연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쥐'나 '집시남작'의 그늘에 가려진 비운의 작품이 되고 말았다. 본 음반은 2007년 10월 스톡홀름 베르발트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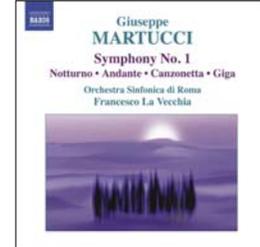
8.570587
F. 카롤리 & G. 카롤리: 기타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프란츠 할라스(guitar)/ 데보라 할라스(pf)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페르디난도 카롤리가 완성한 기타 교본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베토벤의 '마술피리' 선율에 의한 변주곡을 기타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과 로시니 선율에 의한 이중주, '비단사다리', '아르미다', '세비아의 이발사' 등의 로시니 오페라 서곡의 편곡 등을 수록하였다. 일부 작품은 아들 구스타보 카롤리와 공동작곡한 것들이다.



8.57208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바실리 페트렌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젊은 마에스트로 바실리 페트렌코가 교향곡 11번을 시작으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녹음에 돌입하였다. 굶주림을 호소하기 위해 왕궁으로 향하던 시위대에 차르의 친위대가 무차별 발포했던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을 생생하게 음악으로 표현해낸 이 교향곡은 작곡가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격정적인 악상을 담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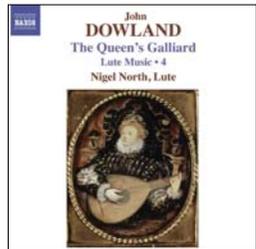


8.570758
바이올라스: 교향곡 2부작, 바이올린 협주곡, 엑소더스 1 루츠마 마타이티테(vn)/ 긴타라스 린케비치우스/ 리투아니아 국립 교향악단
 펠릭스 바요라스(1934년생)는 리투아니아의 민속음악에 기반을 둔 개성적인 음악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다.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2부작은 자신의 오페라 '신의 양'의 선율을 차용한 작품이며, 바이올린 협주곡은 리투아니아의 옛 노래에서 빌려온 선율과 리듬을 활용한 서정적인 작품이다. 타악기들의 색채적인 울림이 돋보이는 관현악작품인 엑소더스 10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929
마르투치: 교향곡 1번, 지가, 칸초네타, 야상곡 1번, 안단테 프란체스코 리 벤키아/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제페 마르투치는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으며, 이 나라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곡가다. 말리피에로, 레스피기, 피제티와 같은 거물급 후배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교향곡 1번은 형식적인 면에서 슈만과 브람스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낭만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교향곡 걸작의 하나로 손꼽힌다. 지가, 칸초네타, 야상곡과 같은 매력적인 피아노소품들의 관현악편곡을 함께 담았다.

Idil Biret Beethoven Edition



8.570284
다운랜드: 류트 작품집 Vol.4 (Queen's Galliard)
나이젤 노스(lute)
 열렬한 호평 속에 진행되었던 나이젤 노스의 다운랜드 류트 독주곡 시리즈의 4번째이자 마지막 음반. 영국이 자랑하는 이 류트의 대가는 본 시리즈를 통해 유수의 음반전문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내었다. 본 음반에는 유명한 'Go from my window' 외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프란시스 월싱엄, 존 사우스, 프란시스 윌러브와 같은 당대 유명인들과 관련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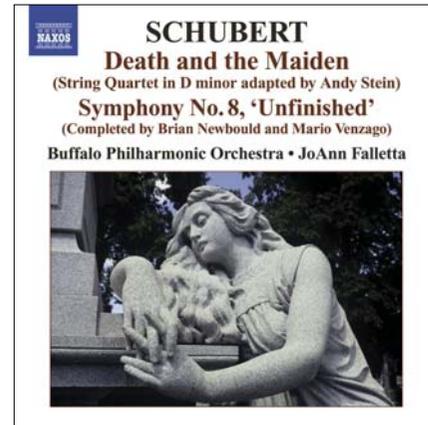
8.571255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7번, 25번, 21번 '발트슈타인'
이딜 비렛(pf)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심미적인 소노리티 역시 매혹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이 빌헬름 켐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라모폰-



8.571256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4, 5번 (피아노편곡)
이딜 비렛(pf)
 "EMI elctrola 음원의 재발매." 음악에 완전히 몰입된 이딜 비렛의 연주를 감상해보라. 특히 교향곡 4번의 마지막 악장에서 그의 연주는 최고로 빛을 발한다. 요셉 크립스와 콘체르트헤보우가 만들어내었던 고전적인 해석의 거울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이파이 뉴스-



8.571257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 4번
이딜 비렛(pf)/ 안토니 비트/ 빌켄트 심포니
 "이딜 비렛은 인상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템포, 소노리티, 폴리포니, 그리고 테크닉에 대한 이 연주자의 뛰어난 숙련도는 베토벤 작품의 모든 분위기를 감싸싸하게끔 만든다." -로 누벨 음세르 바투르-



8.572051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관현악편곡, 교향곡 8번 '미완성' 4악장 완결 버전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베르트의 인기 현악사중주인 '죽음과 소녀'는 말러에 의한 현악합주 편곡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음반에는 앤디 스테인이 전형적인 로맨틱 교향곡의 형태로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또한 미완성교향곡의 4악장 완결 버전을 함께 수록하였다. 스케치만 남아있던 3악장을 브라이언 뉴볼트가 재구성하였고, 로자문데 간주곡 1번을 마지막 악장으로 대체한 형태다.



8.570828
슈미트: 교향곡 1번, 노트르담 중전주곡, 간주곡, 카니발 음악
바실리 시나이츠키/ 말뱌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란츠 슈미트는 독일 후기 낭만 음악의 대미를 장식한 작곡가다. 그의 교향곡 1번은 1900년 베토벤상 수상작으로, 브람스와 브루크너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1914년 빈에서 초연된 오페라 '노트르담'은 작곡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간주곡이 특히 잘 알려져 있다. 본음반에는 간주곡 외에도, 전주곡과 카니발 음악을 함께 수록하였다. 러시아의 거장 바실리 시나이츠키의 녹음 데뷔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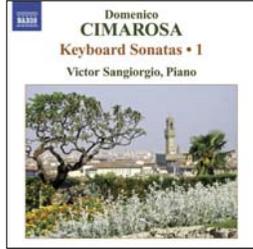
8.559398
레쉬노프: 바이올린협주곡, 현악사중주 1번
찰스 워더비(vn)/ 마칸드 타카/ 볼티모어 챔버/ 카르페 디엠 사중주단
 조나선 레쉬노프(1973년생)는 미국 음악계의 차세대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는 작곡가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탄탄한 구성 속에 빛나는 서정성을 이입한 작품이며, 'Distant Reflectors'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명상적인 성격의 작품이다. 현악사중주 1번은 비발디의 사계와 마찬가지로 계절의 이미지를 표현한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타이틀인 필 저먼은 후원자의 아내의 이름이다.



8.559610
생: 레드 실크 댄스, 티벳 스윙, 피닉스, 훈
브라이트 쉹(pf)/ 제러드 슈워츠 / 시에를 심포니 오케스트라
 중국계 미국 작곡가 브라이트 쉹 (1955년생)의 관현악곡 훈(H'un:상치)은 문화혁명 당시의 암울한 기억을 어두운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티벳 민속음악에서 소재를 얻은 티벳 스윙,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영감을 얻은 피닉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카프리치오 풍의 작품인 레드 실크 댄스는 실크로드 대성들의 험난한 여정을 자유로운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8.572252-53 [2CDs]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24개의 고야 카프리치오 전곡
조란 두키치(guitar)
 고야의 판화집 '변덕' (Los Caprichos)는 기괴하고도 초자연적인 그림들로 가득 채워졌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고야의 이 기이한 작품집에서 받은 영감을 기타 독주를 위한 작품들로 음악화하였다. 가장 세고비아를 위해 완성된 이 독특한 작품집을 스펙터클한 초절기교로 명성을 얻고 있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조란 두키치의 연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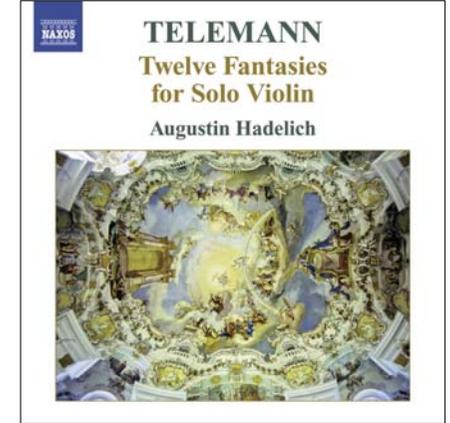
8.570718
치마로사: 건반소나타 Vol.1
빅토르 산조르조(pf)
 도메니코 치마로사는 18세기 후반의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65편 이상의 오페라들을 통해 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나, 다른 장르에서도 상당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건반소나타들은 가정음악회를 겨냥한 작은 스케일의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작곡가 특유의 화려한 선율미를 담은 양단 악장과 우아한 서정이 돋보이는 느린 악장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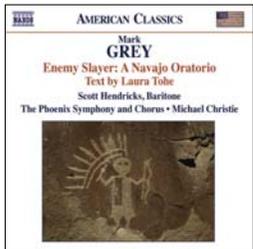
8.570370
투리나: 스페인 이야기 1,2권, 옛 스페인의 추억, 실루엣
호르디 마스(pf)
 민족주의 작곡가로서의 투리나의 진가를 확인케 하는 스페인의 향토적인 정취를 짙게 머금은 작품들이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2권으로 구성된 '스페인 이야기'는 제목과 같이 스페인 각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나타낸 것. '카르멘', '하베네라', '돈환' 등의 악장들로 구성된 '옛 스페인의 추억' 역시 유사한 정서의 작품이며, 세고비아, 그라나다, 톨레도, 세비아 등의 풍광을 담은 실루엣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440
리스:
피아노협주곡 7번, 몰 브리타니아 주제
대변주곡, 서주와 변주곡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우베 그로트/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본 음반에 수록된 3작품은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리스가 영국에서 체류하던 시절에 완성된 것들이다. 제목 그대로 런던에서의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 완성한 작품인 피아노협주곡 7번 '영국에서의 고별 콘서트' 외에도, 영국의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노래 'Rule Britannia'의 선율에 의한 변주곡, 그리고 역시 당대의 인기가요였던 'Soldier, will you marry me?'의 선율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을 수록하였다.



8.570563
텔레만: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판타지
아우구스틴 하델리히(vn)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텔레만의 12개의 판타지는 바흐의 소나타와 파르티타에 비견될 만한 빼어난 작품이다. 아마추어 연주자나 교습용 작품으로 기획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단 한 대의 바이올린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험한 경이로운 걸작이다.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자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정교한 기교가 이 걸작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8.559604
그레이: 나바호 오라토리오 - enemy slayer
스콧 헨드릭스(br)/ 마이클 크리스티/ 피닉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마크 그레이(1967년 생)의 'Enemy Slayer'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나바호 인디언들의 창세화를 오라토리오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나바호 출신 시인인 로라 토헤가 쓴 나바호족 언어 리브레토에 곡을 붙였다. 프롤로그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리톤 독창과 140명 규모의 합창단, 그리고 대편성 관현악을 요구하는 대작으로, 나바호의 전설상의 쌍둥이 영웅들의 무용담이 드라마틱한 음악을 통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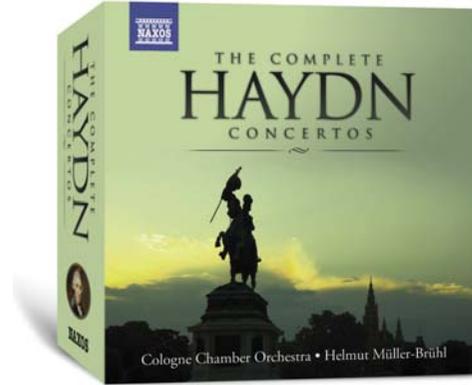
8.570950
스카를라티: 지옥의 유리디체, 첼로소나타 2번, 성모수태
아르스 리리카 휴스턴
 미국 휴스턴에 기반을 둔 고음악 앙상블인 아르스 리리카의 녹음인 일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칸타타 '지옥의 유리디체'와 오라토리오 '성모수태'를 수록하였다. 바로크 오페라에 일찍이 그렸던 나폴리 악파의 거두답게 그의 종교음악을 역시 드라마틱한 구성과 매우 화려한 선율미를 보여준다. 첼로 소나타 2번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토카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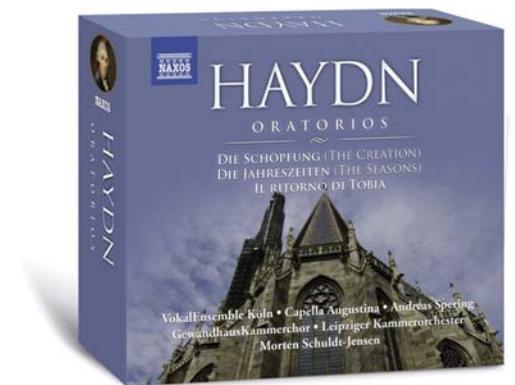
8.660215
라벨: 어린이와 마술, 세헤라자데
줄리 불리앙(ms)/ 알래스타어 윌리스/ 내시빌 심포니와 합창단
 1925년 초연된 라벨의 단막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은 말쑥파 리기 아이가 심술을 부리다가 엄마에게 혼나는 일상적인 상황을 라벨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어린이와 엄마 외에 주전자와 찻잔, 책과 고양이, 정원의 나무 등 집안의 가구와 장난감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관현악반주의 연가곡 '세헤라자데'는 트리스탕 클링조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동양적인 정취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8.669020-21 [2CDs]
하겐: Shining Brow
여러 가수들/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과 합창단
 폴 멀든의 리브레토에 데린 하겐이 곡을 붙인 2막 오페라 'Shining Brow'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낙수장 등의 걸작 건축물을 설계한 미국의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생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라이트는 탈리엔신(빛나는 이마라는 뜻의 웨일즈어)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거처를 건축하였는데, 오페라의 제목은 그 건축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8.506019
하이든: 협주곡 전집 [6CDs]
여러 연주자들/ 헬무트 윌러-브릴/ 필른 챔버 오케스트라
 현존하는 하이든의 협주곡들을 모두 수록한 박스 세트 음반이다. 트럼펫협주곡, 첼로협주곡과 같은 인기작을 외에도, 리르 오르가니자테라는 희귀 악기를 위한 협주곡(플루트와 리코더로 연주하였다.)들과 오르간 또는 하프시코드를 위한 건반협주곡들, 그리고 각종 콩쿠르나 입시의 단골 레퍼토리인 바이올린협주곡들까지 7장의 음반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8.507008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사계, 토비아의 귀환) [7CDs]
임선혜, 로베르타 인베르니치, 시발라 루벤스 외 여러 연주자들
 하이든이 남긴 세 편의 오라토리오를 하나로 묶었다. 천지창조와 사계는 헨델의 메시아나 멘델스존의 엘리야에 필적하는 오라토리오의 대표작들인 반면, 작곡가의 첫 오라토리오인 토비아의 귀환은 최근에 들어 서양 주목 받기 시작한 하이든의 숨겨진 걸작이다. 임선혜, 시발라 루벤스, 로베르타 인베르니치, 한노 윌러 브라흐만, 스티븐 맥레오드, 안 코보프 등의 일급 가수들의 정철을 담았다.



Historical & Nostalgia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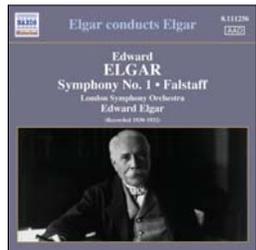


8.111303
베토벤: 교향곡 3번, 레오노레 1,3번 서곡
오토 클렘페러/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수많은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었던 거장 오토 클렘페러. 이국 땅 영국에서 본고장 독일의 정통 사운드를 멋지게 재현해내었던, 이 위대한 지휘자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과 두 편의 레오노레 서곡에서도 특유의 묵직한 박력과 거대한 스케일을 펼쳐보인다. 1954년과 55년의 녹음들로 복각계의 마이클스 마크 오버트-슨의 손을 거쳐서 한결 생생한 사운드로 거듭 났다.



8.112011
파데레프스키 미국 빅터 레코딩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멘델스존, 슈만,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외
 20세기 전반기의 대표 비르투오조이자, 인기곡 'f조의 멜로디'의 작곡가이며, 1차대전 이후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파데레프스키. 1914년부터 1940년까지 그가 미국 빅터에서 녹음한 진귀한 음원들을 한 음반에 간추렸다. 월광소나타 1악장,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쇼팽의 왈츠와 에튀드,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물레차는 노래',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의 편곡,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등을 수록.



8.111256
엘가: 교향곡 1번, 팔스타프
(1930-1932년 녹음)
에드워드 엘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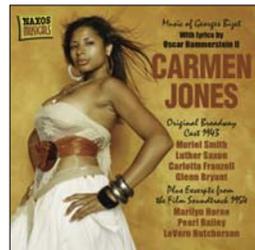
1908년 한스 리히터에 의해 초연된 이후 엘가의 교향곡 1번은 '근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절찬을 받았다. 교향적 연습이라는 부제가 붙은 '팔스타프'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기교적인 교향시의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다. 1930년(교향곡)과 31-32년(팔스타프)의 녹음으로, 죽음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직접 지휘봉을 잡고 남겼던 값진 기록들이다.



8.111325
게디니: 음악의 현정, 롤메네타, 성모호칭기도
조르조 페데리코 게디니/ 나폴리 알레산드로 스카라티 오케스트라
 20세기 이탈리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조르조 게디니는 과거의 음악, 특히 바로크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영감을 얻었던 인물이다. 본 음반에는 자신의 스타일로 오케스트레이션한 바흐의 '음악의 현정' 과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스타일의 작품인 롤메네타, 그리고 역시 보수적 스타일의 종교합창곡 '성모호칭기도'를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수록하였다.



8.112012
베버: 피아노소나타 2번, 리스트: 피아노소나타, 전설 2번 외
알프레드 코르토(pf) (1931-48년 녹음)
 알프레드 코르토가 1931년에서 1948년 사이 HMV를 통해 남겼던 녹음들을 간추린 음반이다. 베버의 소나타 2번에서는 대가로서의 아가자기한 터치와 서정적인 연주를, 리스트의 소나타에서는 열정적인 풍모를 만날 수 있다. 브람스의 자장가와 슈베르트의 위령제 봉헌기도는 본인이 직접 편곡한 것들이다.



8.120875
카르멘 존스
오리지널 캐스팅 브로드웨이 캐스팅
 <카르멘 존스>는 브로드웨이의 귀재 오스카 햄머스테인 주니어가 비제의 음악을 근사하게 엮어서 만들어낸 뮤지컬이다. 카르멘은 낙하산공장의 흑인여공 카르멘 존스로, 투우사 에스카미요는 인기복서 허스키로 바뀌었지만 전연극의 내용은 원작과 유사하다. 1943년 오리지널 캐스팅과 함께, 1954년 동명 뮤지컬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발췌한 하이라이트가 함께 수록되었다.



8.111284-85 [2CDs]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1957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피오렌차 코스토, 니콜라 몬티/ 안토니노 보토 / 라 스칼라
 1957년 안토니노 보토의 지휘봉 아래 칼라스가 녹음한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는 최고의 명반으로 사랑받았다. 소녀 시절부터 아미나라는 캐릭터에 매료되었던 칼라스는 이 음반을 통해서 최적의 여주인공상을 연기해내었다. Eb의 고음에서도 기막힌 디미누엔도의 묘미를 보여주는 'ah non giunge'를 비롯하여 이 가수의 위대함을 확인케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자리잡았다.



8.111332-33 [2CDs]
푸치니: 라보엠 (1956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주제페 디 스테파노, 안나 모포/ 안토니노 보토 / 라 스칼라
 마리아 칼라스는 1956년 라 스칼라와 더불어 라보엠의 녹음을 남겼지만,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는 이 오페라를 노래한 기록이 없다. 칼라스가 이 오페라를 멀리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레코딩을 통해 확인되는 그의 미미는 각별한 매력적이다. 최상의 파트너 디 스테파노가 노래한 로돌포와 안나 모포의 무제타, 그리고 파네라이의 마르첼로 역시 나무랄 곳 없다.



8.111334-35 [2CDs]
푸치니: 투란도트 (1957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틀리오 세라핀/ 라 스칼라
 1957년 칼라스가 타이틀롤을 노래한 투란도트는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는 레코딩이지만, 이 위대한 오페라의 연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코딩임에는 분명하다. 얼음과도 같은 투란도트의 이미지를 강렬한 카리스마로 담아낸 칼라스의 연기와 함께, 슈바르츠코프의 류와 차차리아의 티무르도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는 반면, 에우제니오 페르난디의 칼라프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8.112020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발라드 3번, 슈만: 카니발 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pf)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이기에 앞서 20세기 초기를 대표하는 건반 위의 위대한 비르투오조였다. 본 음반에는 1925년에서 1942년 사이 라흐마니노프가 녹음한 피아노 독주곡들이 수록되었다. 쇼팽의 소나타 2번과 발라드 3번, 야상곡 Op.9-2와 왈츠들, 그리고 슈만의 카니발 전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8.110119-20 [2CDs]
베르디: 시몬 보카네그라
티토 곱비/ 보리스 크리스토프/ 데 로스 앙헬레스/ 가브리엘레 산티니/ 로마 오페라
 불세출의 바리톤 티토 곱비의 시몬 보카네그라와 불가리아 출신의 거물 베이스 보리스 크리스토프가 노래하는 야코포 피에스코, 그리고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의 사랑스런 이멜리아 그리말디가 가브리엘레 산티니의 강렬한 카리스마 아래서 위대한 베르디의 드라마를 완성하였다. 1957년 로마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반세기 가 지난 지금까지도 동곡의 레퍼런스로 빠지지 않는 역사적인 명반이다.



8.111329-30 [2CDs]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집시남작 슈바르츠코프, 게다, 쿤츠, 프라이/ 오토 야케르만/ 필하모니아 산티니/ 로마 오페라
 '집시남작'은 '박쥐'와 더불어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남긴 오페레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터키 파사의 딸로 밝혀지는 집시소녀, 점쟁이 집시여왕, 추방된 지주, 우스꽝스러운 지방귀족들이 뒤얽혀 펼쳐가는 흥겨운 오페레타다. 1954년 런던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슈바르츠코프, 게다, 쿤츠의 이상적인 라인업에 더하여 젊은 시절 헤르만 프라이어의 싱싱한 음성도 함께 만날 수 있다.



8.111331
드보르작: 슬라브춤곡, 카니발서곡
바츨라프 탈리히/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츨라프 탈리히는 체코가 배출한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거장이다. 반세기 가까운 긴 기간동안 체코 필의 수장을 역임하면서 이 악단을 유럽 최정상급의 악단으로 성장시켰다. 본 음반은 1935년 가을 그와 체코 필이 영국을 방문하여 완성한 녹음으로, 거장의 대표녹음의 하나로 손꼽히는 수연이다. 드보르작의 손끝을 통해 표현된 보헤미아의 향토적인 정취를 이들 만큼 근사하게 표현해낸 음반도 많지 않을 것이다.



Phoenix Edition

www.phoenixedition.com



Phoenix 177
C. 슈타미츠 & J. 슈타미츠: 클라리넷협주곡
한스 다인처, 안 엔젤(c)/ 가브리엘레 페로, 울프 비외를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요한 슈타미츠는 초기 고전 교향곡의 선각자이자, 클라리넷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작곡가였다. 역시 뛰어난 작곡가였던 그의 큰 아들 카를이 2대의 클라리넷을 위해 완성한 협주곡과 오케스트랄 퀴넷을 함께 수록하였다. 자비네 마이어 남매, 마틴 프리츠, 앤드류 매리너 등 현재 활약중의 정상급 클라리넷 연주자들을 두루 배출했던 명교사이자 솔리스트로서도 맹활약했던 한스 다인처가 독주를 맡았다.



Phoenix 176
하이든: 소프라노 칸타타, 교향곡 92번 '옥스퍼드', 바이올린협주곡 4번
M. 슈미게(sop), I. 자이페르트(vn)/ 페르디난트 라이트너 외/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1987년에 녹음된 하이든의 옥스퍼드 교향곡은 독일의 거장 페르디난트 라이트너가 시대악기 연주단체를 지휘한 진귀한 기록이다. 입시곡으로 자주 애용되는 바이올린협주곡 4번 D장조를 함께 수록하였다. 런던 바로크의 리더였던 앙드레 매리너 등 현재 활약중의 정상급 클라리넷 연주자들을 두루 배출했던 명교사이자 솔리스트로서도 맹활약했던 한스 다인처가 독주를 맡았다.



Phoenix 175
케루비니: 하이든의 죽음에 대한 애가, 교향곡 D장조
M. 슈미게(sop), M. 힐(te) 외/ 가브리엘레 페로/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하이든의 죽음에 대한 애가는 탄생 배경이 재미있다. 영국의 한 잡지가 1804년 하이든의 죽음을 오보했고(하이든은 이보다 5년이나 지나서 죽었다.), 파리의 한 프리메이슨 단체의 위촉으로 케루비니가 그를 애도하는 이 작품을 완성했던 것이다. 해프닝의 결과물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하이든에 대한 케루비니의 존경심을 절절히 느껴진다. 베토벤의 초기작을 연상케 하는 작곡가의 유일한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Phoenix 173
하이네켄, 그라우프너, 파슈, 그라운: 서곡(관현악모음곡)
한스 마르틴 린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바흐와 비슷한 시기에 중부 독일 일대에서 활동했던 중요 작곡가 4명이 남긴 16개의 교향곡은 낱센 이후 이 나라 교향곡 역사의 큰 정점을 찍었던 작품들이다. 그의 마지막 두 교향곡은 서로 상반된 특징을 보여준다. 베이스 독창과 남성합창이 덧붙은 15번이 모더니스트로서의 감각을 보여주는 반면, 16번에는 낭만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Phoenix 174
고전 교향곡 모음집
(고세크, 반할, 마오, 크라우스)
한스 마르틴 린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하이든,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네 작곡가들의 교향곡들을 함께 모은 음반. 가보트로 유명한 고세크의 1762년 작품인 교향곡 Bb장조, 빈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비견될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요한 반할의 교향곡 G단조, 스웨덴의 모차르트 불렀던 요제프 크라우스의 교향곡 C단조, 아직 바로크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앙트앙 마오의 교향곡 4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Phoenix 172
플루트협주곡집
(텔레만, 프리드리히대왕, 파슈)
콘르트 힌들러, 권터 힐러(f) 외/ 한스 마르틴 린데 외/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플루트는 18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독주악기였다. 당대의 대가 텔레만 역시 이 악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작곡가였다. 텔레만의 플루트와 리코더를 위한 이중협주곡, 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그리고 요한 파슈의 플루트와 오보에를 위한 이중협주곡, 마지막으로 프로이센을 강대국의 열반에 들게한 계몽군주이자 스스로 뛰어난 플루트연주자였던 프리드리히 대왕이 작곡한 플루트협주곡을 함께 담았다.



Phoenix 171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
(헨델, 하세, JS 바흐)
엠마 커크비(sop) 외/ 한스 마르틴 린데 외/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헨델의 솔로 칸타타 'Silete Venti'는 자신이 아끼던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기교의 작품이다. 1985년의 녹음으로 전성기 엠마 커크비의 투명한 음성과 빼어난 기교를 만날 수 있다. JS 바흐의 세속 칸타타 BWV205 '슬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에서는 소피 불랭의 열반에 들게한 계몽군주이자 스스로 뛰어난 플루트연주자였던 프리드리히 대왕이 작곡한 플루트협주곡을 함께 담았다.



Phoenix 178
하세:
오페라 <클레오피데> 하이라이트
엠마 커크비, 데렉 리 라긴 외/ 윌리엄 크리스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클레오피데>는 하세가 1731년에 완성한 3막 오페라다. 이 음반은 1986년 바로크 오페라계의 거물인 윌리엄 크리스티가 WDR의 초청을 받아서 카펠라 콜로니엔시스와 함께 완성했던 걸출한 전곡 녹음에서 중요 아리아들을 발췌한 음반으로, 엠마 커크비, 아그네스 멜러, 데렉 리 라긴, 도미니크 비스와 같은 정상급 바로크 전문 성악가들의 빼어난 가창을 만날 수 있다.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519 [Hybrid-SACD]
랑고르:
교향곡 15, 16번, 스프링스 외 관현악곡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루에드 랑고르(1893-1952)는 20세기 전반기 덴마크 음악계의 이단아로 불리던 작곡가다. 특히 그가 남긴 16개의 교향곡은 낱센 이후 이 나라 교향곡 역사의 큰 정점을 찍었던 작품들이다. 그의 마지막 두 교향곡은 서로 상반된 특징을 보여준다. 베이스 독창과 남성합창이 덧붙은 15번이 모더니스트로서의 감각을 보여주는 반면, 16번에는 낭만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6.220547 [Hybrid-SACD]
니르고르:
교향곡 3, 7번
덴마크 국립 보컬 앙상블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페르 니르고르는 현재 덴마크 음악계가 자랑하는 최고의 심포니스트이다. 우주의 조화를 주관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3번은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교향곡으로, 알토 독창과 대편성합창을 동반하는 대작이다. 교향곡 7번은 2008년 6월에 초연된 최신작으로 다양한 타악기 조합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울림들을 강조한 다이내믹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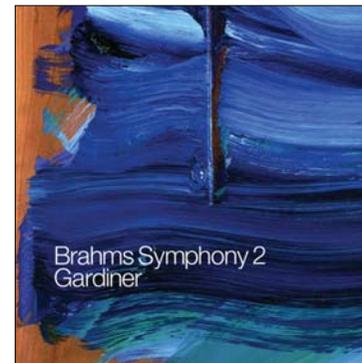
8.224709
카이자:
교향곡 1,4번
마티아스 에슈바허
올보르크 심포니

레이프 카이저(1919-2001)는 덴마크 음악계의 기대주로 크게 각광받았던 작곡가지만, 스스로 사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음악계와 연을 끊고 말았던 독특한 이력의 인물이다. 그가 남긴 4개의 교향곡은 작곡가로서의 그의 뛰어난 재능을 확인시켜준다. 10대 후반의 작품인 교향곡 1번은 후기낭만주의를 충실하게 계승한 작품이고, 보다 진보적인 시범으로 씌어진 교향곡 4번은 내면적인 성향의 작품이다.



Soli Deo Gloria [SDG]

www.solideogloria.co.uk



SDG 703
브람스:
교향곡 2번, 알토랩소디
슈베르트-브람스:
타타르인의 무리, 마부 크로노스에게
슈베르트:
물 위의 정령의 노래

나탈리 스투츠망(alt)/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가디너/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의 브람스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 교향곡 2번을 담고 있는 이번 신보에는 브람스의 음악에 내재된 슈베르트의 영향에 대한 가디너의 진지한 고찰을 보여준다. 흑단과 같은 짙은 음색의 소유자인 나탈리 스투츠망이 절절히 노래하는 알토랩소디와 슈베르트의 합창곡 '물 위의 정령의 노래'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두 작품 사이의 유사한 정서를 비교해볼 수 있게끔 배려하였으며, 브람스가 관현악 반주의 남성합창곡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두 가곡 '타타르인의 무리'와 '마부 크로노스에게'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두 작곡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Marco Polo

www.naxos.com



8,225289
슈트라우스 1세:
아폴로 왈츠, 리스트의 추억 환상곡 외
크리스티안 폴락/ 슬로박 신포니아 칠리나

마르코 폴로의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에디션의 13번째 음반, 1840년 빈 음악협회가 주최한 무도회를 위해 작곡한 작품인 '체칠리아 왈츠'에는 이 협회의 첫 명예회원이었던 베토벤을 기리기 위해 크로이처 소나타의 선율을 차용하였으며, 빈을 방문한 리스트를 기념하는 작품인 '리스트의 추억 환상곡', 그리고 '큐피트의 화살', '베니스의 사육제', '아폴로 왈츠'와 같은 재기발랄한 왈츠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225315
슈포어:
현악사중주 9, 17번
모스크바 필하모니 콘체르티노 현악사중주단

슈포어의 현악사중주들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같은 고전주의 사중주곡들의 정형성과 재바이올린의 기교적인 프리에즈로 대변되는 초기 낭만주의 실내악의 특징을 함께 보여준다. 그의 현악사중주들은 당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전반기의 여러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26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루치아 폼(sop), 앤 머레이(ms), 안소니 로프 존스(te), 르네 파페(bass)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

1992년 10월 8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 텐슈테트가 은퇴 직전 런던 필과 펼쳤던 최후 콘서트를 중 하나로 그의 진정한 거장성을 느끼게끔 하는 연주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억의 이름이 되어버린 루치아 폼의 음성을 만날 수 있으며, 앤 머레이, 안소니 로프 존스와 같은 영국 베테랑들과 막 세계무대로 부상하던 시점의 르네 파페의 묵직한 저성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LPO-0037
브리튼:
이중협주곡, 프랑크 브리지 변주곡, 일루미나시옹
샬리 매튜스(sop) 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런던 필하모닉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브리튼에 도전하였다. 작곡가의 인기 관현악 레퍼토리인 프랑크 브리지의 선율을 의한 변주곡과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협주곡, 그리고 랭보의 시에 곡을 붙인 관현악반주의 연가곡 르 일루미나시옹에서는 현재 영국 오페라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성 소프라노 샬리 매튜스가 독창을 맡았다. 2008년 12월 10일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음반.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www.mdg.de



906 1547-6
MD&G의 베스트 컬렉션
SACD 샘플러 Vol.2
Appassionato - 열정의 음악들

* 디지털이 꿈꾸는 이상향, 궁극의 음향세계!
* 2008년 그래미 어워드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기술상에 빛나는 톤마스터 황병준씨가 추천하는 최고의 오디오파일 샘플러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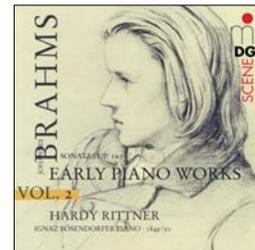
오디오 파일러들에게 사랑받았던 <Inspirato-영감의 음악들>에 이어지는 MD&G의 두 번째 Hybrid-SACD 샘플러 <Appassionato-열정의 음악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샘플러는 아울로스 미디어가 한국 애호가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MD&G의 음원들 중에서 직접 선곡한 트랙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탁월한 음질, 치밀한 기획으로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매료시켜온 독일 최고급 레이블 엠데게(MDG)는 두 명의 패기 있는 톤마스터가 창립한 회사다. 음향에 관한 기술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회사. MDG의 성공비법은 아주 평범한 기초 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이다. MDG는 비록 디지털 음향이지만, 가장 실제 악기 소리에 가깝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음향을 담은 음반을 만드는 회사로 크게 어필했던 것이다. 자연스러움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취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MDG는 스튜디오 녹음을 절대로 피하고, 종교음악의 경우는 유서 깊은 교회를 선택하고 실내악은 음향조건이 특별히 좋은 연주회장이나 고성에서 즐겨 녹음한다. 녹음 스튜디오는 음악을 경직되게 하고 천연일물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엠데게사는 어떤 음악이든지 잔향이나 공명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녹음환경 선택을 최우선 과제로 떠올린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기계의 인공적인 조작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 따라서 필터라든지 잡음소거장치를 쓰는 것은 물론, 녹음을 편집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905 1540-6 [Hybrid-SACD]
Serenade to the Dawn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음악들)
안드레아 리버크네흐트(f)
프랑크 분가르텐(guitar)

플루트와 기타는 의외로 멋진 궁합을 보여주는 악기들이다. 본 음반에서는 로드리고의 세레나타,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소나티나, 베이스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빌라로보스의 헌정, 부카르트의 세레나데 등 두 악기를 위해 완성된 20세기의 매력적인 소품들을 만날 수 있다. 두 연주자의 자연스런 호흡을 보여주는 즉흥연주들이 담긴 3개의 보너스 트랙이 함께 수록되었다.



904 1538-6 [Hybrid-SACD]
브람스:
피아노소나타 1번, 3번
하디 리트너(pf)

하디 리트너는 2005년 경남국 제공쿠르에서 윤이상의 작품의 뛰어난 연주로 특별상을 차지했던 독일의 젊은 연주자다. 브람스의 소나타 1번과 3번을 통해 자신의 정교한 기교와 뛰어난 음악성을 확인시켜 준다. 신보의 또 다른 주인공은 브람스가 활동하던 당시인 1849/50년에 이그나츠 쇤데르퍼가 제작한 그런드피아노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바래지 않은 이 역사적인 명기의 고아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



307 1472-2
야나ček: 현악사중주 1,2번
드보르작: 삼나무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야나ček의 사중주 1번은 틀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한 작품이다. 베토벤의 걸작을 통해 부추스키의 소나타 1번과 3번을 통해 자신의 정교한 기교와 뛰어난 음악성을 확인시켜 준다. 신보의 또 다른 주인공은 브람스가 활동하던 당시인 1849/50년에 이그나츠 쇤데르퍼가 제작한 그런드피아노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바래지 않은 이 역사적인 명기의 고아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



601 1539-2
마르탱: 하프시코드협주곡, 폴립티크, 파사칼리
빌리 침머만(vn), 루돌프 사이데거(ceb)/ 약 판 스텐/ 무지크 클레기움 빈터투르

스위스 작곡가 마르탱(1890-1974)의 뿌리는 바흐다. 특히 본 음반에 수록된 3작품은 옛 거장의 그림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하프시코드협주곡은 폴랑의 것과 함께 이 악기를 위한 연인 카밀리아를 위한 연서와도 같은 작품이다. 드보르작의 '삼나무'는 자신의 연가곡을 스스로 편곡한 것으로, 역시 연애의 명기인 바흐 지향적인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뚜렷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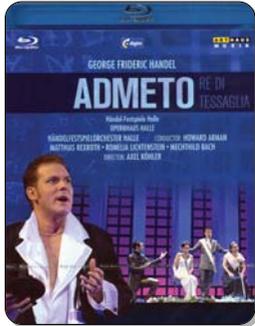
316 1292-2
뒤르페: 79개의 코랄 발췌, 3개의 전주곡과 푸가, 미제레레 외
벤 판 오스텐(버밍엄 타운 홀 오르간)

판 오스텐이 진행중인 뒤르페 오르간 작품 시리즈의 10번째 음반.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작곡가의 대표 오르간 작품인 Cortège et Litanie Op.19-2, 타이틀에 걸맞게 명상적인 악상으로 채워진 '미제레레'와 '리멘토', 바흐 오마주 성격의 작품인 79개의 코랄 중 14곡 등을 수록. 잉글랜드의 가장 거대한 오르간의 하나인 버밍엄 타운 홀 오르간의 장중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258

헨델: 아드메토

마티아스 렉스로트(아드메토), 로멜리아 리흐텐슈타인(알체스테), 메흐틸트 바흐(안티고나) 외/
하워드 아맨/ 할레 헨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헨델의 최고 전성기에 완성된 걸작 오페라

헨델의 오페라 '아드메토'는 18세기 전반기에 완성된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작품의 하나다. '라다미스토', '줄리외 체사레', '타메를라노', '로델린다', '알렉산드로'와 더불어 헨델이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을 위해 작곡한 이른바 '런던 오페라'의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본 공연은 뮌헨, 할레, 베를린과 같은 굵직한 오페라 무대들에서 호평을 받았던 걸출한 카운터테너이자 현재 오페라 연출가로도 또 다른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 악셀 뢰홀러가 연출을 맡았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기반을 둔 이 작품을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배경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능숙하게 표현해내었다.

부조니: 파우스트 박사

토마스 햄슨(파우스트), 그레고리 쿤테(메피스토펠레스) 외/ 필립 조르당/ 취리히 오페라

괴테의 파우스트에 기초한 부조니 최후의 미완성 오페라

부조니의 오페라 '파우스트 박사'는 작곡가가 사망할 시점에 미완성작으로 남아있었다. 페루치오 부조니 1924년 58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 스스로 '진정한 걸작'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파우스트 박사'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완성 부분들인 헬렌의 등장장면과 파우스트의 마지막 모놀로그는 부조니가 1차 대전을 피해 취리히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그와 함께했던 애제자 필립 야나흐가 완성하였다. 야나흐가 완성한 버전은 1925년 드레스덴에서 프리츠 부시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휘자 영국 지휘자 안소니 보몽이 새롭게 발견된 부조니의 스케치를 기초로 새로운 버전의 '파우스트 박사'를 재구성하여 1985년 볼로냐에서 이를 초연하기도 했지만, 2006년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서 펼쳐졌던 본 공연은 야나흐 버전을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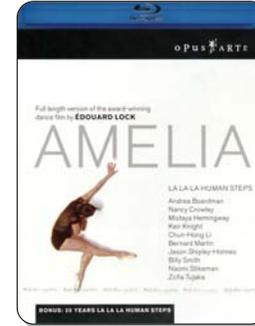


Arthaus 101 284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 BD7009D

라 라 라 휴먼 스텝스의 현대무용극 아멜리아

안무: 에두아르 로크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현대 무용 최대 걸작

2002년 프라하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졌고, 로마의 아르헨티나 극장에서 매진사세를 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그리고 결국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라 라 라 휴먼 스텝스'의 현대무용 최고의 걸작 <아멜리아>를 이제 안방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라 라 라 휴먼 스텝스'는 1980년 에두아르 로크가 창단한 캐나다 무용단. 스페셜 피쳐에는 그의 약단 25년간에 관한 귀한 해설이 담겼다. 시종 빛이 공중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어둠침침한 무대에는 무용수들이 흥분된 스텝을 보여준다. 예기치 않게 아주 부드럽고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고, 적절한 순간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목소리가 가세하여 정서를 리드하고 호소하는데, 단순한 무대에 매우 드라마틱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흐른다. 현대 무용에 관심이 있는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아이템이다. 138분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레온카발로

델 모나코가 열창하던 베리조모의 오페라를 그 아들이 연출하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는 세기말의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가를 주름잡은 베리조모 오페라, 즉 치정으로 얽힌 암울한 상황을 그려낸 사실주의 오페라의 출발점이자 대표작들이다. 특히 두 작품은 직선적인 성격의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서 테너 주인공은 가느다란 미성이 아니라 두툼하고 격정적인 소리로 인간의 본성을 노래해야 더 어울린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투리두와 <팔리아치>의 카니오를 가장 잘 불렀던 이가 드라마틱 테너의 상징적 존재인 마리오 델 모나코였다. 그의 아들이며 오페라 연출계의 거장인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부친의 장기를 연출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회칠한 흰색 건물이 대부분인 시칠리아 정경처럼 모노톤으로 단순화한 무대와 의상이 돋보인다. <팔리아치>는 연출자의 본래 특징대로 정교한 무대를 구성했다. 투리두 역은 오래 전부터 파바로티의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빈첸초 라 스크라가, 카니오 역은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인 블라디미르 갈루친이 열창한다. 2007년 레알 마드리드 극장 실황이며 특히 갈루친의 묵직한 음성은 델 모나코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OpusArte OA BD701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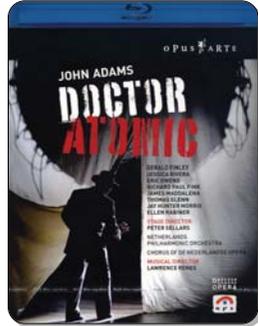
애쉬튼: 발레 '고집쟁이 딸'

희극이면서도 콧등이 시큰할 만큼 감동적인 모녀 사랑의 가족발레

<고집쟁이 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막 발레로 꼽힌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초연되었다. 19세기에도 잘 전승되다가 명맥이 끊겼는데, 1960년 영국의 국민적인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이 이 프랑스 발레를 가장 영국적인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등장인물과 줄거리, 심지어 음악도 19세기 프랑스 전통에서 찾았으면서도 아기자기한 유머, 아귀가 잘 맞는 전개는 과연 영국적이다. 엄마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농부를 선택하는 리제가 주인공인데, 결국 고집을 꺾고 가난한 사위를 받아들이는 시모네 여사의 딸 사랑을 보고 있노라면 웃음 가운데 콧등이 시큰해진다. 다양한 형태의 리본 춤, 일명 '파니 엘슬러 파드되', 여장한 남자무용수가 추는 시모네 여사의 나막신 춤, 가장 인상적인 마임인 '내가 결혼하면' 등 명장면이 많다. 리제에게 구혼하는 부잣집 바보아를 일행과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우산도 매력 포인트다. 레슬리 콜리어가 전설적인 리제로 명성을 떨쳤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랑스런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네즈가 선배를 잇는 솜씨를 선보인다. 또한 리제의 애인 콜라스 역으로 쿠바 출신의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출연하는 것은 대단한 보너스다. 그는 흑인 무용수로는 역대 최고의 인기스타다.



OpusArte OA BD7021D



OpusArte OA BD7020D

존 애덤즈: 원자폭탄 박사

원폭개발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 부부의 고뇌를 그린 화제작

<원자폭탄 박사>는 연출가로 유명한 피터 셀라스가 대본을 쓰고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미국의 존 애덤즈가 곡을 붙인 것이다. 내용은 세계 최초의 원폭을 개발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와 그가 이끈 로스 알라모스의 원폭실험팀에 관한 것인데, 특히 박사의 아내인 키티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극은 원폭 실험이 있기 한 달 전과 원폭 실험이 있던 1945년 7월 15일의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터 셀라스는 기밀에서 해제된 미국 국가문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대본을 썼고, 존 애덤즈는 악구를 반복하는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극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악적인 풍성함을 회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2005년에 초연된 현대 오페라이면서도 음악적으로 덜 난해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혼란을 잘 묘사하고 있다. 본 영상물은 대본을 쓴 피터 셀라스가 직접 연출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초연된 프로덕션을 네덜란드 오페라에서 재공연한 2007년 6월의 최신 실황이다. 애초부터 자신의 연출을 영두에 두고 쓴 대본답게 셀라스는 지극히 잘 계산된 무대와 연기를 창조했다. 초연 당시에도 타이틀 롤을 맡았던 제랄드 핀디가 열연한다.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요한 시몬즈의 탁월한 감각으로 재탄생된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남치된 연인을 구출하기 위한 이야기가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아래 흥겹게 펼쳐지는 본 작품은 2008년 2월 암스텔담의 Het Musiektheater 실황을 담고 있다. 바리톤인 커트 라이들이 연기한 주인공으로서도 유쾌한 지방관 오스민, 이러한 오스민을 역으로 이용해 먹는 스마트하면서도 약간은 건방져 보이는 블룬데역의 (빨간 승마코트와 미니스커트, 그리고 롱부츠가 매력적인)모예카 에드만, 테너 마이클 스몰우드네는 매력적이면서도 점잖은 듯한 페드릴로를 로라 아킨의 콘스탄체 와 그녀의 연인인 테너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의 벨몬테 역 또한 본 공연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네덜란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네덜란드 오페라단 합창단 그리고 그리스 출신의 Constantinos Carydis의 완벽한 지휘 역시 본 작품의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돋보여주며 또 하나의 모차르트 마스터의 탄생을 보는 듯하다. 1080i HD 영상과 돌비트루 HD 5.1 & 2.0 음향을 지원하는 본 타이틀은 공연장인 Het Musiektheater 의 관객들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고 있지 않으며, 챔버 오케스트라의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연주도 잘 살려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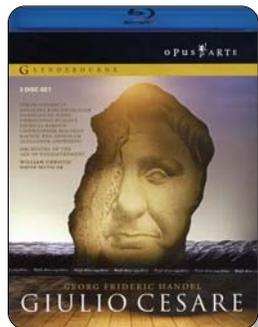
OpusArte OA BD7017D

헨델: 줄리오 체사레

사라 콘놀리(체사레)/ 앙겔리카 키르호술라거(세스토)/ 다니엘 데 니스(클레오파트라)/ 파트리샤 바르동(코르넬리아)/ 크리스토퍼 몰트만(아킬라)/ 크리스토프 뒤모(톨로메오)/ 윌리엄 크리스티(지휘)/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맥비카(연출)/ 로버트 존스(미술)

크리스티의 손끝에서 재현된 헨델의 걸작 오페라

1724년에 초연된 헨델의 장편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는 작곡가가 남긴 수많은 이탈리아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줄리오 체사레(율리우스 케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로맨스, 클레오파트라와 톨로메오 남매의 암투, 톨로메오에게 살해된 폼페이(폼페이우스)의 아내와 아들인 코르넬리아와 세스토의 복수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 장대한 오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간다. 4시간이 넘는 공연시간을 자랑하는 작품인 만큼 일부를 생략한 축약본 형태로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편이나 본 영상물이 담고 있는 2005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은 작품 전체를 온전히 무대에 올렸다. 케사르를 19세기말 빅토리아 왕조시대의 정복자로 재해석한 데이비드 맥비카의 창조적인 연출은 별다른 지루함 없이 이 기나긴 작품을 단번에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일급 성악진들의 열창과 연인이 눈부시며, 특히 클레오파트라를 맡은 데 니스의 매력적인 옹모와 관능적인 연기가 특기할 만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바로크 오페라 스페셜리스트인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는 이 영상물의 음악적인 충실함을 보장한다. 프로덕션 포토 갤러리, 리허설 포토 갤러리,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 데 니스의 글라인드본 생활상을 재미있게 다룬 2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헨델 오페라 재해석에 관한 프로덕션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OpusArte OA BD7024D [2Disc]



모레노 토로바: 루이사 페르난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열창하는 20세기 사르수엘라의 명작

사르수엘라는 대사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스페인 전통가극이며 특히 마드리드가 중심이다. 사르수엘라의 대가 모레노 토로바가 1932년에 작곡한 <루이사 페르난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르수엘라의 명작이며 가벼운 19세기 사르수엘라에 비해 훨씬 극적인 구성과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루이사 페르난다(낸시 에레라)는 나이 든 지주 비달 에르난데스 (플라시도 도밍고)와 청년 장교 사비에르 모레노(호세 브로스)의 구애를 동시에 받고 있다. 페르난다는 마음속으로 모레노를 사랑하지만 그가 다른 귀족여인의 사랑도 받고 있음을 알고는 에르난데스의 구혼을 받아들인다. 정치적 이유로 마을에서 사라졌던 모레노는 페르난다의 결혼이 임박한 시점에 옛 연인을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레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페르난다 그러나 에르난데스는 페르난다의 진정한 사랑이 모레노에 있음을 깨닫고는 결혼을 코앞에 둔 신부를 떠나보낸다. 거장 헤수스 로페즈 코보스가 지휘하는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의 2006년 7월 실황이며 이곳에서 태어난 오페라계의 제왕 플라시도 도밍고가 비달 에르난데스 역을 열창한다.



OpusArte OA BD7023D

도브: 피노키오

카를로 콜로디의 유명한 원작 피노키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오페라를 탄생

벤자민 브리튼 이후 가장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조나단 도브가 카를로 콜로디의 유명한 원작 피노키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오페라를 탄생시켰다. 평단이나 관객들에게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영국 리즈에 자리잡고 있는 오페라 노스의 초연으로 2008 영국 작곡가 상을 수상 하기도 한 본 작품은 무대감독 마틴 던컨과 그의 팀이 만들어 낸 어두우면서도 마법같은 매력적 가득 차 있는 개성 있는 무대는 심도있는 관현악 스코어와 웅장한 합창곡들, 그리고 29명의 개성있는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아리아에 힘입어 콜로디의 원작에 빛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타이틀롤을 맡은 빅토리아 시몬즈는 제작자인 캐서린 붓이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역동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피노키오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휘를 맡은 데이빗 페리와 오페라 노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빛어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배우들의 연기에 힘을 더해주며 새로운 고전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1080i HD영상과 돌비트루 HD 5.1의 음향이 수록된 블루레이 타이틀은 오페스 아르테의 우수한 화면 디자인과는 별개로 공연장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들게 하며, 잘 알려진 스토리라인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다양한 소품덕에 한글자막이 없음에도 아이들도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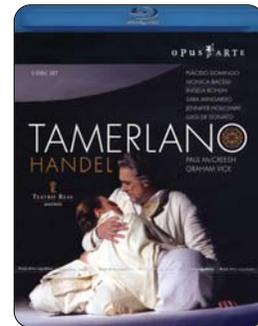
OpusArte OA BD7019D

헨델: 타메를라노

플라시도 도밍고(바야제트), 모니카 바첼리(타메를라노), 사라 밍가르도(안드로니코) 외/ 폴 맥크리시/ 마드리드 테아트르 레알

헨델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는 플라시도 도밍고의 획기적인 도전작

오페라 '타메를라노'는 헨델이 자신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 불과 20일 만에 완성한 작품으로, 직전작인 '줄리오 체사레'와 직후작인 '로롤린다'와 더불어 헨델 오페라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타메를라노는 칭기즈 칸의 후예로 알려진 동방의 정복자 티무르의 이탈리아식 이름이며, 타메를라노와 그에게 포로로 잡힌 터키의 술탄 바야제트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이 극의 중심내용을 이룬다. 헨델은 오리엔트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유럽에 유행하던 터키풍의 이국적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오페라 역사상 테너(바야제트)가 주인공을 맡은 최초의 작품들 중 하나라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본 DVD는 2008년 3/4월 마드리드의 테아트르 레알에서 있었던 실황으로, 바로크 오페라에 도전한 플라시도 도밍고의 최근 모습을 담은 값진 영상물이다. 여러 최신 명반들을 통해 헨델 극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은 폴 맥크리시가 지휘봉을 잡았고, 흑단과 같은 짙은 음색으로 바로크 성악곡들에서 두각을 드러낸 사라 밍가르도와 이미 피노키오의 DVD를 통해서도 같은 역할을 멋지게 들려주었던 모니카 바첼리가 다시금 이 작품의 타이틀 롤을 노래하였다.



OpusArte OA BD7022D [2Disc]



Medici Arts DVD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www.euroa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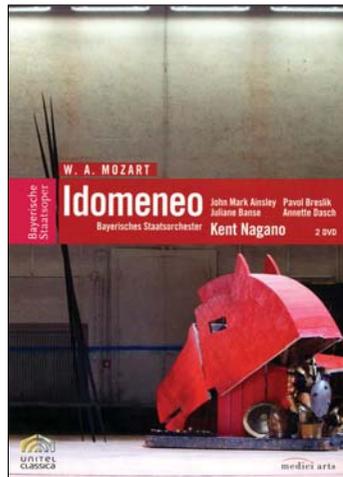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72378

페르골레지: 스타바트 마테르
비발디: 협주곡 RV577, RV556

카티아 리차렐리(sop)/ 루치아 발렌티니 테라니(alt)
클라уди오 아바도 /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단원들

전성기 아바도의 손끝을 통해 탄생한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성모의 절절한 슬픔을 노래한 '스타바트 마테르'는 고금의 여러 작곡가들에게 매력적인 음악소재가 되어왔다. 그중 가장 인기 높은 작품이 바로 20대에 생을 마감했던 비운의 작곡가 페르골레지의 작품이다. 종교음악적인 경건함과 무대음악적인 화려함 사이의 균형, 감성을 자극해오는 아름다운 선율들, 그리고 적은 연주 인원만으로도 엄청난 음악적 감동을 도출해내는 탁월한 효율성이 인기의 이유일 것이다. 본 영상은 1979년 카린티안 여름 페스티벌 중의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46세 아바도의 열기왕성한 면모를 만날 수 있으며, 당시 라 스칼라의 간판이었던 카티아 리차렐리와 루치아 발렌티니 테라니가 솔리스트로 나섰다. 최근 연주경향에 비해 무대음악적인 화려함이 보다 강조된 예스런 해석이지만, 페르골레지의 아름다운 선율과 애상적인 분위기를 감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덤으로 아바도가 지휘한 비발디의 두 협주곡들도 만나볼 수 있다. 1979년에 촬영된 영상임에도 화질이 준수하며, PCM 스테레오와 DTS 멀티채널을 함께 지원하는 사운드 역시 훌륭하다.



Medici Arts DVD 2072448
[2DVDs]

모차르트 : 이도메네오

존 마크 애인즐리(이도메네오)/ 파블 브레슬릭(이다만테)/ 울리안 반제(일리아)/ 아네트 다슈(엘레트라)/ 켄트 나가노/ 바이에른 슈타츠오페라

역사적인 초연무대의 재개관 기념작으로 펼쳐진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이도메네오>는 모차르트가 25세 되던 해인 1781년에 완성한 3막의 오페라세리이다. 바이에른의 선제후 카를 테오도르의 요청에 의한 작품으로 그해 1월 29일 뮌헨의 쿠빌리에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신과의 경솔한 약속으로 아들을 희생시켜야하는 크레테의 왕 이도메네오와 그 아들 이다만테 사이의 갈등과 이다만테를 둘러싼 두 여인, 일리아와 엘레트라의 갈등이 이 오페라의 중심 내용을 이루며, 특히 3막에 등장하는 엘레트라의 광란의 아리아 'D'Oreste, d'Aiace'가 유명하다. 본 DVD는 2008년 6월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슈타츠오페라가 바로 이 오페라의 초연장소였던 쿠빌리에 극장의 재개관 기념으로 펼쳐던 화제의 공연실황을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노래와 연기 모두에 특출한 존 마크 애인즐리가 아들을 희생시켜야하는 이도메네오의 괴로움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고, 파국으로 치닫는 광란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연기한 아네트 다슈와 가련한 여인상을 단아하게 드러낸 울리안 반제의 열연도 눈길을 끈다. 워르겐 로제의 미니멀하면서도 적절한 상징성을 갖춘 무대미술과 중세일본풍을 차용한 의상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Medici Arts DVD 2020098

메디치아츠 (= EuroArts) 2009년 샘플러

Emmanuel Pahud(flute)/ Berliner Philharmoniker/ Mariss Jansons

핫 이슈!!! 이보다 더 좋은 샘플러는 없다
하나의 DVD전체를 수록한 파격적인 구성
최고의 콘서트 실황 수입 DVD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2001년 유러피언 콘서트 DVD + 2009년 카탈로그
- 베를린 필 유러피언 콘서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
- 현역 최고의 플루티스트(엠마누엘 파위)와 거장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와의 만남
- 환상적인 전곡 레퍼토리 / 하이든 놀람 교향곡, 모차르트 플루트협주곡 2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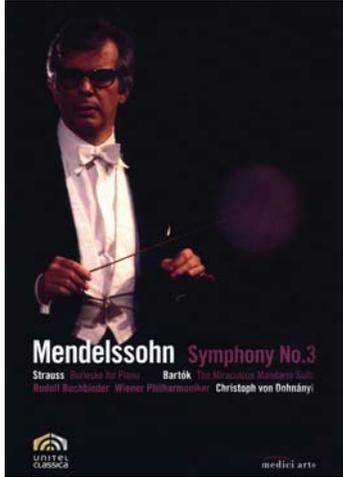
유로아츠, 메디치아츠로 거듭나다!!

클래식 콘서트 DVD의 명가 유로아츠와 음악 다큐멘터리 전문 레이블 Ideal Audience가 합병하여 메디치아츠로 다시 태어났다. 2009년 메디치아츠의 샘플러 DVD는 기존의 하이라이트 단편들을 모아놓은 형태를 벗어나서, 하나의 DVD전체를 고스란히 수록한 파격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이번 샘플러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유러피언 콘서트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연주로 큰 사랑을 받았던 2001년 아테네 콘서트 전체다. 명실상부한 현존 최고의 거장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은 압도적인 쾌연으로 입소문이 자자했던 연주며, 플루트의 귀공자 엠마누엘 파위가 독주자로 나선 모차르트의 플루트협주곡 2번과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도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최고의 콘서트 실황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

[수록곡]

- Haydn : Symphony No.94 in G major "Surprise"
- Mozart : Concerto for Flute & Orchestra No.2 in D major, K.314
-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Op.14





Medici Arts DVD 2072208

멘델스존: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바르톡: '이상한 만다린' 콘서트 모음곡
 R 슈트라우스: 부를레스크

루돌프 부흐빈더(pf)/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성파 마에스트로 도흐나니가 지휘한 멘델스존의 "스코틀랜드 교향곡"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는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북독일방송(NDR)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맹활약중인 지휘계의 거물이다. R 슈트라우스와 베르크의 오페라들의 스페셜리스트이며, 독일 낭만작곡가들의 관현악에도 정통하다. 본 DVD는 그가 1977년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필하모닉을 지휘한 콘서트 실황으로, 거장 지휘자로 막 발돋움하던 시점의 정력적인 모습을 담은 값진 영상물이다. 이후 그는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의 음악감독을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파리 오케스트라 등의 대서양 양안의 정상급 단체들의 수장을 두루 거치면서 현존 최고 거장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탁월한 리듬감각을 느낄 수 있는 베르토크의 '이상한 만다린' 모음곡, 빈을 대표하는 정통파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와 협연한 R. 슈트라우스의 부를레스크, 도흐나니의 이지적인 해석과 빈 필의 부드러운 사운드가 멋지게 조화를 이룬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까지 거장의 진면목을 느끼게 부족함이 없는 알찬 레퍼토리들을 담았다.

슈베르트: 현악오중주 D.956 (현악합주편곡)
 피아졸라: 망각 / 슈니트케: 조용한 음악
 로자: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 라스카토프: W.A.M.의 삶 속의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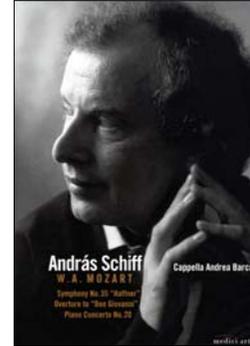
기돈 크레머(vn)/ 크레머타 발티카

기돈 크레머의 감각적인 연주에 담은 피아졸라의 '망각'(Oblivion)

2002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있었던 기돈 크레머/크레머타 발티카의 콘서트실황을 담은 두 번째 영상물. 모차르트의 작품과 모차르트로부터 모티프를 얻은 작품들을 담았던 전작과 달리, 본 DVD에서는 크레머의 다양한 음악적 관심사를 보다 끌고루 수록하였다. 먼저 슈베르트의 마지막 열정을 담았던 실내악결작인 현악오중주 D956을 보다 풍성한 소노리티의 현악합주버전으로 들려준다. 크레머와 깊은 인연을 맺은 두 작곡가의 작품이 이어진다. 피아졸라의 유명한 '망각'(Oblivion)이 감각적으로 연주되며,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슈니트케의 실내악소품인 '조용한 음악'(Stille Musik)이 그 뒤를 잇는다. '벤허', '퀴바디스' 등의 헐리우드 대작의 영화음악으로 유명하지만 진지한 클래식 작곡가이기도 했던 미클로스 로자의 복고풍 작품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중 2악장 주제와 변주에 이어서, 모차르트의 다양한 선율을 인용한 라스카토프의 흥미진진한 소품 'W.A.M.의 삶 속의 5분' 이 영상의 대미를 멋지게 마무리한다.



Medici Arts DVD 3072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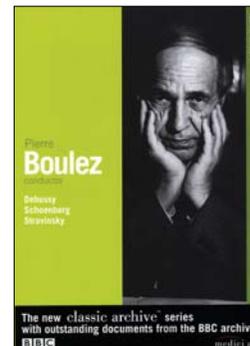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7268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 피아노협주곡 20번 '돈조반니서곡'
 바흐 : 반음계 환상곡과 푸가
 언드라슈 쉬프(pf)/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쉬프의 영롱한 터치로 빛어낸 피아노협주곡 20번의 아름다운 로망스악장

80년대 중후반 졸탄 코치슈, 데즈 랑키와 더불어 헝가리의 피아노 3인방으로 음악계를 흥분시켰던 언드라슈 쉬프. 동료 코치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캐리어에 도전하였다. 본 DVD는 2008년 5월 이탈리아 비센차의 유서 깊은 테아트르 올림피코의 무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지휘와 피아노 양면에 걸친 쉬프의 활약상을 담았다. 무엇보다 모차르트의 후기 걸작 교향곡의 하나인 35번 '하프너'와 '돈조반니' 서곡, 그리고 피아노협주곡인 20번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대단히 알차며, 양코스로 연주한 바흐의 '반음계 환상곡과 푸가'도 바흐 건반작품들로 큰 화제를 모았던 그의 젊은 시절의 활약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거장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1585년에 마지막으로 남긴 걸작인 테아트르 올림피코는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을 모방한 반원형 객석과 아름다운 조각들로 장식된 3차원 무대가 인상적인 공연장으로 이 영상물의 품격을 한층 더 시각적으로 높여주고 있다.



Medici Arts DVD 308523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쇤베르크: 영화장면을 위한 부수음악
 드뷔시: 영상, 유희

피에르 불레즈/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필하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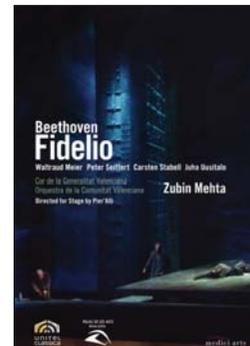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하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드뷔시의 영상

작곡과 지휘 양 분야 모두에서 현존 최고의 거장으로 음악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피에르 불레즈. 이 DVD는 60년대부터 90년대의 이르기까지 지휘자로서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포트레이트 영상물이다. BBC의 방송영상들로, 불레즈가 가장 큰 열정을 기울였던 작곡가들인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의 관현악곡들을 수록하였다. 1966년에 녹화되어 2년 뒤에 방영된 드뷔시의 '야상곡' 중 '축제'와 '유희'에서는 당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빛에 민감해있던 불레즈가 강한 조명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지휘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만나게 된다. 1974년 8월의 방영분은 드뷔시의 '영상' 전곡과 쇤베르크의 '영화장면을 위한 부수음악'을 담았다. 이들 영상이 불레즈의 장년기 모습을 담은 흑백영상인 것에 반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비교적 최근 기록인 1997년의 선명한 화면으로 수록되었다. 복잡한 스코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는 뛰어난 분석력과 오케스트라의 소노리티를 세련되게 다듬어 내는 능력, 그리고 리듬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등 불레즈의 장점을 뚜렷이 보여주는 값진 영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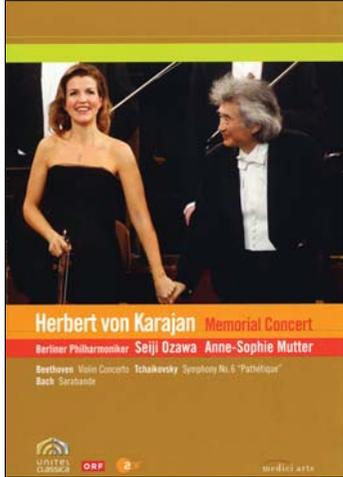
베토벤: 피델리오

발트라우트 마이어의 최근 모습을 만나는 가장 신선한 <피델리오>

발렌시아에는 스페인 왕비 소피아의 이름이 붙은 일련의 문화공간이 있다. 풍부한 미술품을 소장한 뮤지엄이 유명하던 여기에 명물이 추가되었으니 바로 '팔라우 데 레차르'라는 오페라극장이다. 인공호수에 건립된 초현대식의 아름다운 이 극장은 2006년에 첫 시즌을 맞이했는데 본 영상에 실린 <피델리오>는 소피아 왕비가 임성한 가운데 그해 10월에 공연된 오프닝 실황이다.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로, 당대에 유행한 구출극을 진지하게 다룬 <피델리오>는 남편을 구하고자 피델리오라는 가명으로 남장한 레오노라가 감옥 간수로 들어온 이야기다. 이 역을 독일을 대표하는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가 노래한다. 바그너 가수로 소프라노 역할까지 소화하는 마이어이기에 바그너 오페라의 선구자를 노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 남편 플로레스탄 역은 이런 레퍼토리에 가장 정통한 페터 자이페르트가 열창한다. 아름다운 극장과 더불어 피에르 알리의 연출에도 주목하시라. 그는 <피델리오>의 목적인 분위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사실성과 상징성이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무대를 구현했다. 지휘자 주변 메타는 피델리오 서곡은 물론 피날레 직전에는 가장 유명한 레오노레 서곡 제3번을 삽입했다.



Medici Arts DVD 2072498



Medici Arts DVD 2072518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탄생 100주년 감동의 2008 기념 콘서트

베를린 필, 소피 무터, 오자와 세계 일급 음악가들과 함께 만난 콘서트
 카라얀 악단, 그리고 거장이 가장 총애했던 두 음악가들이 올린 2008년 추모 콘서트
 카라얀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며 키웠던 안네 소피 무터가 연주하는 베토벤 협주곡
 카라얀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자 세이지 오자와
 카라얀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 중후한 레퍼토리 비창 교향곡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 '지휘의 황제', '지휘자의 대명사', '지휘의 신' 등 이 세상 음악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사와 수석어로 존경받았던 카라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8년 콘서트를 담은 영상물이다. 장소는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페라인잘. 유서 깊은 빈의 음악 홀이지만 오케스트라가 카라얀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이라는 점이 오묘한 정서를 환기하며 눈길을 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카라얀이 가장 아끼던 두 명의 음악가가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1963년생의 안네 소피 무터는 잘 알려진 대로 13세의 어린나이에 카라얀의 오디션을 받은 후 '메뉴힌 이후 최고의 천재'라는 거장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바이올리니스트다. 베를린 필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이 낳은 대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카라얀의 애제자였다. 오자와는 카라얀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운 제자로 생각했었다고 늘 기쁨으로 슬회하곤 했었다.

베를린 필, 오자와, 무터라는 세계 일급의 음악가들이 만난 콘서트!

보나마나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 너무도 감동적인 '영광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 영상물을 DVD로 만나볼 날을 손꼽은 애호가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이미 2008년 5월경부터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계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카라얀이 '분더킨트', 즉 천재라고 높이 치켜세웠던 무터는 이제 45세 원숙한 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느린 악장에서 보여주는 지극히 우아한 톤과 모든 완전한 기술, 그리고 심연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정서의 깊이에 청중들이 숨죽이며 몰입해있는 광경이 마치 성찬을 치르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처럼 경건하기 이를 데 없다. 오자와의 지휘도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통제하던 카라얀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긴밀함을 보여준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영상물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아닐까 싶다. 베토벤의 협주곡이 끝난 후 무터가 잠시 독일어로 인사하고 곧바로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2번의 사라방드를 연주하며 7분에 이르는 독무대를 이끈다. 베를린 필과 73세 노장 오자와가 홀에 있는 청중들을 마지막으로 흠뻑 울리는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교향곡이다. 물론 카라얀이 베스트 레퍼토리 중의 하나다. 독일의 디 벨트(Die Welt)지는 이 감동적인 콘서트를 '추억의 승리'라고 했는데, 감상하고 있는 내내 대중적 레퍼토리를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 제공했던 카라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 관악기 현악기 할 것 없이 베를린 필의 앙상블은 정말 섬세하기 이를 데 없다. 2008년 최신 영상물이라서 너무도 맑고 깨끗한 화면에, 엄청난 해상도의 음향을 제공한다. 보너스 트랙에는 무터와 오자와가 카라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Opus Arte DVD OA1003D [2DVDs]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로라 에이킨(콘스탄체)/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벨몬테)/ 쿠르트 라이들(오스민) 외/
 콘스탄티노스 카리디스/ 네덜란드 챔버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오페라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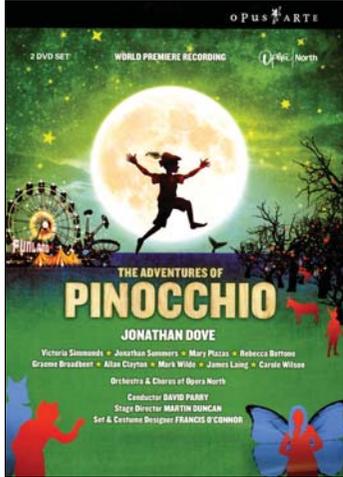
가수들의 뛰어난 열연으로 풀어낸 모차르트의 이국적인 오페라 걸작

터키를 배경으로 한 모차르트의 징슈필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는 작곡가가 26세 되던 해인 1782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당시 유행하던 터키풍의 흥겨운 선율과 초연 당시 요제프 2세가 음표가 너무 많다고 투덜대었을 정도로 콜로라투라의 극치를 보여주는 화려한 아리아들로 가득한 매력만점의 작품이다. 연출가 요한 지문스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무대를 배경으로 젤림과 벨몬테 사이에서 갈등하는 콘스탄체의 심리묘사에 역점을 두었다. 네덜란드의 명배우 스테벤 판 바테르월렌가 열연한 바사 젤림 외에도 다섯 주역 가수들의 빼어난 연기가 눈을 즐겁게 한다. 현존 최고의 오스민 쿠르트 라이들은 명불허전의 관록의 연기를 보여주며,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주역 가수로 명성을 얻었던 미국 소프라노 로라 에이킨과 유럽 정상급 오페라하우스들에서 모차르트 테너로 인기를 얻고 있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테너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가 남녀 주인공을 빼어나게 노래하였다. 블론데의 적역과도 같은 독일 소프라노 모이카 데르드만의 발랄한 미모도 빼놓을 수 없다.

[보조자료]

○ 오페라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벨몬테는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터키에 노예로 팔려버린 사랑하는 여인 콘스탄체를 찾기 위해 건축가로 위장하여 터키로 잠입한다. 벨몬테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젤림의 구애를 강하게 거부하던 콘스탄체는 벨몬테와 해후한 뒤 탈출을 계획한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발각되고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지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연적에 양보하는 젤림의 자비로움을 통해 이들은 고향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싣게 된다. 라모의 오페라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의 1막도 이와 대단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존 최고 베이스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쿠르트 라이들은 1947년 빈에서 태어났다. 빈과 모스크바에서 성악을 배운 후 린츠와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에서 활동했고, 1976년부터는 빈 슈타츠오퍼의 중진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86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카머쟁거의 타이틀을 받았다. 독일 오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체코 작품들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왔으며, 바이로이트, 잘츠부르크, 브레겐츠, 베로나와 같은 일급 음악 페스티벌의 단골손님으로 활약해왔다. 우락부락하면서도 어딘지 해학적인 그의 외모는 오스민이라는 캐릭터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



Opus Arte DVD OA1005D
[2DVDs]

도브 : 피노키오의 모험

빅토리아 시몬즈(피노키오)/ 조나선 섬머즈(제페토)/ 메리 플라자스(블루 페어리) 외/
데이비드 페리/ 오페라 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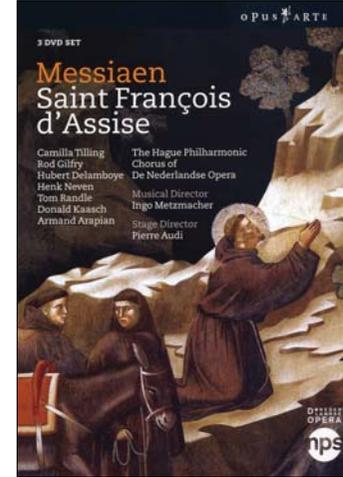
가족 오페라로 재탄생한 피노키오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

1883년 어린이동화의 형태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나무인형 피노키오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로 남아있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말쑥꾸러기 나무인형의 이야기를 담은 카를로 콜로디의 이 유명한 이야기는 11차례나 영화 또는 만화로도 만들어졌다. 오페라와 합창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영국의 현존 작곡가 조나선 도브는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멋진 가족 오페라의 형태로 재창조하였다. 오페라의 내용은 원작 동화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원작에 등장하는 귀뚜라미, 여우, 고양이, 비둘기, 달팽이 등등의 30종 가까운 다양한 조연들 역시 제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려낸 의상과 분장을 갖추고 빠짐없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형형색색의 무대 디자인과 의상들은 동화의 느낌을 근사하게 살려내었으며, 피노키오 역의 빅토리아 시몬즈를 비롯한 출연가수들의 다소 과장스런 연기도 떠들썩한 오페라의 전체 분위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출판업자의 '헨젤과 그레텔', 메노티의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의 뒤를 잇는 멋진 가족 오페라가 탄생하였다.

[보조자료]

○ 조나선 도브(1959년생)는 오페라와 합창음악, 그리고 영화음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 작곡가다. 공황을 배경으로 한 코믹 오페라 'Flight' (1998년 초연)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국 오페라계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이후 '마법 걸린 돼지', '토비아스와 천사', '과시와 쿼' 등이 연거푸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의 명성을 드높였다. '피노키오의 모험'은 오페라 노스와 세들러스 웰즈 극장의 공동 위촉으로 씌어진 작품으로, 2007년 12월 21일 리즈 대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영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본 영상은 순회일정의 대미를 장식했던 2008년 2/3월 런던 세들러스 웰즈 극장에서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 오페라는 카를로 콜로디의 원작을 충실히 담아내었다. 목수 제페토는 말하는 나무동치를 발견하고, 이를 깎아서 나무인형 피노키오를 만든다. 피노키오는 학교를 빼먹고, 책을 팔아 그 돈으로 인형극을 관람한다. 여우와 고양이에게 속아 넘어가고, 강도들을 만나 나무에 목이 매달린다. 블루 페어리가 그를 구해주지만, 거짓말을 하다가 코가 길어진다. 결국 여우와 고양이에게 금화를 뺏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즐거운 놀이동산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당나귀로 바뀌게 되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 그 뱃속에서 제페토를 다시 만난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피노키오는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다.



Opus Arte DVD OA1007D
[3DVDs]

메시앙: 앗시시의 성 프랑소와

로드니 질프리(프랑소와), 카밀라 킬링(천사), 헝크 네벤(레옹 수사), 탐 랜들(마제 수사) 외/
잉고 메츠마허/ 네덜란드 오페라 합창단, 헤이그 필하모닉

메시앙의 모든 창조적 역량을 집대성한 대작 오페라 드디어 DVD로 등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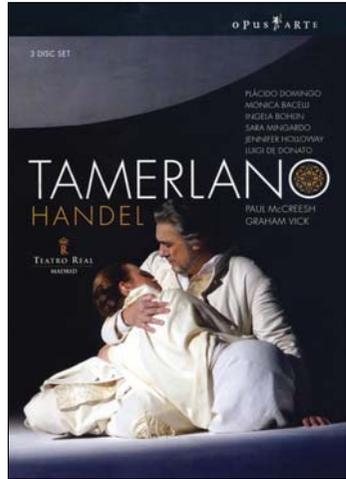
'앗시시의 성 프랑소와'는 메시앙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 작품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메시앙은 오페라라는 장르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파리 오페라 축의 간곡한 요청과 당시 프랑스 대통령 폼피두의 강권,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소재에 흥미를 느껴서 이 대작 오페라를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꼼꼼히 완성하였다. 4시간을 가뿐히 넘는 장대한 작품길이와 110명 규모의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3대의 웅드 마르토노(초기 전자악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스케일의 관현악반주는 웅만한 바그너의 대작들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준다. 오페라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창설자이자 평화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13세기의 성직자 성 프란체스코(프랑소와)의 행적과 그와 관련된 이적들을 모두 8개의 장면에 나누어 표현하였다. 새들을 향한 설교를 담은 장면 6은 평생을 통해 수만 종의 새들의 소리를 연구해왔던 이 작곡가의 노력이 특히 빛을 발하는 부분이며,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하는 '성흔'과 '선종' 장면의 강렬한 감동도 놓칠 수 없다.

[보조자료]

○ 프란체스코 수도회(작은 형제 수도회)의 창립자이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라는 기도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1181/2년 앗시시에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는 기사가 되길 꿈꾸던 평범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중병으로 신음하면서 신앙에 귀의하게 되었고, 이후 성자의 대명사라고도 같은 거룩한 생을 살아나갔다. 죽기 2년 전인 1224년 베로나의 한 산에서 기도하던 중 신비한 환상과 함께 몸에 새겨졌던 성흔(Stigmata)은 그와 관련된 이적의 절정이었다. 1228년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 오페라는 다음과 같이 모두 3막의 8장면으로 구성되었다.
 - 1막: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설명, 형제 수사들과의 아침기도, 문둥병자를 사랑으로 치유함
 - 2막: 떠돌이 천사와의 만남, 천사의 음악을 듣다, 새들을 향한 설교
 - 3막: 성흔(Stigmata), 선종과 새로운 삶

○ 본 DVD는 메시앙의 탄생 100주년이었다던 지난 2008년 5/6월 암스테르담 헤트 극장에서 있었던 네덜란드 오페라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현대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독일 지휘자 잉고 메츠마허가 지휘봉을 잡았고, 일급 오페라 극장들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들을 통해 각광을 받았던 미국 출신의 명 바리톤 로드니 질프리가 타이틀 롤을 노래하였다. 연출은 네덜란드 오페라의 예술 감독인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피에르 아우디가 맡았다.



Opus Arte DVD OA1006D [3DVDs]

헨델 : 타메를라노

플라시도 도밍고(바야제트), 모니카 바첼리(타메를라노), 사라 밉가르도(안드로니코) / 폴 맥크리시/ 마드리드 테아트르 레알

헨델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는 플라시도 도밍고의 획기적인 도전작

오페라 '타메를라노'는 헨델이 자신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 불과 20일 만에 완성한 작품으로, 직전작인 '줄리오 체사레'와 직후작인 '로멜린다'와 더불어 헨델 오페라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타메를라노는 칭기즈 칸의 후예로 알려진 동방의 정복자 티무르의 이탈리아식 이름이며, 타메를라노와 그에게 포로로 잡힌 터키의 술탄 바야제트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이 극의 중심내용을 이룬다. 헨델은 오리엔트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유럽에 유행하던 터키풍의 이국적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오페라 역사상 테너(바야제트)가 주인공을 맡은 최초의 작품들 중 하나라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본 DVD는 2008년 3/4월 마드리드의 테아트르 레알에서 있었던 실황으로, 바로크 오페라에 도전한 플라시도 도밍고의 최근 모습을 담은 값진 영상물이다. 여러 최신 명반들을 통해 헨델 극음악의 스펙트럴리스트로 각광 받은 폴 맥크리시가 지휘봉을 잡았고, 흑단과 같은 짙은 음색으로 바로크 성악곡들에서 두각을 드러낸 사라 밉가르도와 이미 피노코와의 DVD를 통해서도 같은 역할을 멋지게 들려주었던 모니카 바첼리가 다시금 이 작품의 타이틀 롤을 노래하였다.

[보조자료]

○ 1724년 10월 31일 런던의 킹스 시어터에서 초연되었던 '타메를라노'는 당시 헨델이 동원 가능했던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대거 초연 무대에 섰다. 스타 카스트라토들이었던 안드레아 파치니와 세네시오가 타이틀 롤과 그리스 왕자 안드로니코를 각각 맡았고, 헨델의 단골 소프라노 히로인 프란체스카 쿠초니가 바야제트의 딸 아스테리아를 노래하였다. 오페라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바야제트 역할을 맡았던 이는 당대의 명테너 프란체스코 보로시니였다.

○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 바야제트는 티무르(타메를라노)와의 전투에서 패한 뒤 그의 딸 아스테리아와 함께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아스테리아는 그리스 왕자 안드로니코의 연인이었지만, 아스테리아에게 흑심을 품은 타메를라노는 그리스 왕자를 주는 조건으로 안드로니코를 구출한다. 그 즈음 타메를라노의 정혼자였던 이레네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타메를라노의 궁정에 나타난다. 아스테리아와 바야제트는 타메를라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지만, 이레네의 활약으로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다. 바야제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의 장렬한 죽음에 감동받은 타메를라노는 아스테리아를 안드로니코와 맺어주고 자신은 이레네와 결합한다.

○ 파바로티, 카레라스와 더불어 3테너라는 이름으로 클래식 음악계의 아이콘이 되었던 플라시도 도밍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그의 자기계발은 끝이 없다. 바그너 테너로 맹활약한지 오래이며, 바로크 오페라라는 또 다른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스타덤에 오르기 이전인 60년대 중반 라모의 오페라에 잠깐 출연했던 것을 제하면, 이번 타메를라노가 그가 도전한 유일한 바로크 오페라 레퍼토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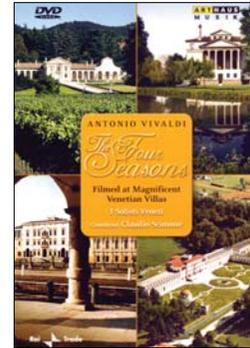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비발디: 사계

연주: 이 솔리스트 베네티, 지휘: 클라우디오 시모네



Arthaus DVD 107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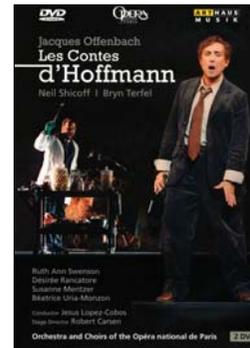
1725년 암스테르담 판본에 의한 아주 특별한 연주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레퍼토리인 비발디의 <사계>는 수많은 연주회와 레코딩이 있었지만, 비발디가 쓴 필사본으로 연주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비발디의 <사계> 자필본은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대가인 클라우디오 시모네는 <사계>의 여러 판본 중 가장 비발디의 작법에 근접하다는 판단 하에 1725년 암스테르담의 미셸 르 센(Michel Le Cene)본을 선택해서 녹음했다. 지면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암스테르담 판본은 비발디가 아주 간명하고 전통적인 작법을 구사했던, 그리고 생생하고 극적인 연주를 많이 즐겼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무튼 이 영상물의 연주는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모두 베네치아의 장엄한 대저택에서 잡은 영상이기에 아름다운 정원이며, 화려한 실내의 명화들이며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섬뜩할 정도의 기교를 지닌 이탈리아 베테랑 연주자들의 완벽한 사계절이다! **TDK DVUS-COFS 동일영상물.**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프랑스 최고의 낭만오페라가 들려주는 호프만의 '세 가지 색 사랑'

<호프만의 이야기>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문호 E.T.A.호프만이 회상하는 초현실적인 러브 스토리 세 편에 프랑스의 오펜바흐가 곡을 붙인 환상적인 걸작 이다. 인형 올랭피아, 몸이 약해서 노래 부르다 죽는 안토니아, 베네치아의 고급 창녀 줄리에타가 그의 옛 사랑이다. 여기에 오페라 가수 스텔라와 호프만의 뮤즈까지 합치면 그의 여인은 다섯으로 늘어난다. 유럽 오페라 연출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버트 카르센의 경이로운 무대를 담은 바스티유 극장의 2002년 10월 실황에는 쓰리 테너급의 명가수로 인정받는 실력파 닐 쉬코프(호프만)를 비롯하여 데지레 랑카토레(올랭피아), 루스 앤 스웬슨(안토니아), 베아트리스 우리아-몽종(줄리에타), 수잔 멘처(뮤즈, 니콜라우스) 등 세계적 가수들이 상대역으로 출연한다. 여기에 브린 터펠까지 악마역으로 가세했다. 특히 프랑스가 자랑하는 메조소프라노 베아트리스 우리아-몽종의 고풍적 카리스마와 대담한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영상물이다. **TDK DVUS-OPLCDH 동일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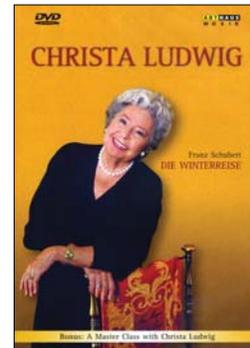


Arthaus DVD 107 027 [2DVDs]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가장 존경받는 메조소프라노가 부른 뜻밖의 <겨울나그네>

독일의 크리스타 루트비히(1928~)는 화려함의 유혹을 뿌리치며 여물어간 정통파 메조소프라노로서 일세를 풍미했다. 유명한 성악가 부모를 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8세에 데뷔하여 최고의 오페라 메조소프라노로 우뚝 섰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에 갑작스런 목소리의 퇴조가 일어난 것이다. 루트비히는 현명하게도 오페라 레퍼토리를 점점 거둬들이고 리트 가수로 전향을 꾀함으로써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갔고 결국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본 실황은 루트비히가 199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슈베르트의 가장 유명한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부른 것이다. 여자 가수가 <겨울 나그네>라니!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굳이 성을 구별할 일이 없을 만큼 보편적인 명곡이다. 특히 처음 여성가수로는 루트비히 외에도 그녀의 후배인 브리기에 파스벤더, 프랑스의 나탈리 스투츠만 등이 이 곡을 부른 것으로 유명하다. 루트비히는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연륜으로 이 곡을 불러나간다. 이보다 5년 후에 빈의 볼크스테아테르에서 행한 마스터클래스가 덤으로 실린 것 또한 훌륭한 보너스다.



Arthaus DVD 102 147



Arthaus DVD 101 361

도니체티: 마리아 스투아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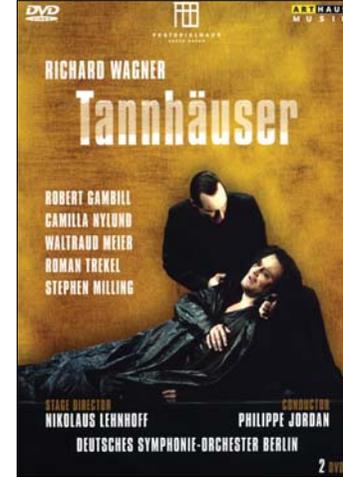
비운의 스코틀랜드 왕비 메리 스튜어트의 사랑과 죽음!

가에타노 도니체티는 16세기 영국사를 장식한 세 명의 왕비와 여왕을 오페라로 작곡했는데 이를 소위 '도니체티 여왕 삼부작'이라 부른다. 1편은 '천일의 앤'의 주인공 앤 불린을 그린 <안나 불레나>, 2편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등장하는 <마리아 스투아르다>, 3편은 영국의 황금기를 이끈 엘리자베트 여왕의 비밀스런 사랑을 그린 <로베르토 데브뢰>다. 이중 <마리아 스투아르다>는 스코틀랜드에서 왕위를 빼앗기자 친척 언니인 영국여왕 엘리자베트에게 몸을 의탁한 메리 스튜어트가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애정문제까지 겹쳐 엘리자베트 여왕과 대립하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얘기를 담고 있다. 가장 완벽한 테크닉을 지닌 소프라노로 자타가 공인하는 마리엘라 데비아가 마리아 스투아르다를 노래하고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대형 메조소프라노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가 엘리자베트 여왕을 부른 2008년 라 스칼라 실황이다. 두 여인이 동시에 사랑하는 레이첼스터 공을 노래한 벨칸토 테너 프란체스코 멜리의 미성도 인상적이며, 무대장치와 의상까지 담당한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는 새장처럼 답답한 궁전과 아름다운 숲을 대조시켜 역시 대가임을 입증했다.

[보조자료]

○ 메리 스튜어트(1542~1587)는 태어나자마자 스코틀랜드 여왕의 신분이 되었지만 모친에게 섭정을 맡기고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다. 프랑스 왕세자와 역혼했고 17세에는 프랑스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병약한 남편 프랑수아 2세가 일찍 죽는 바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직접 통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남자 관계가 문제였다. 재혼한 헨리 스튜어트는 왕위를 노리는 무절제한 인물이었고 메리가 총애한 궁정음악가 리치오를 참살했다.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은 그녀는 유부남 보스웰 백작을 사랑했고 새 애인은 남편을 암살해 버렸다. 그런데도 보스웰 백작과 결혼한 바람에 신하는 물론 국민들까지 여왕의 문란한 사생활에 분노하여 등을 돌렸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간신히 영국으로 도망하여 엘리자베트 여왕의 보호를 받지만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는 영국 왕위계승권자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 처형당했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여기에 레이첼스터 공과의 러브 스토리를 추가했는데 도니체티의 오페라는 실러의 극을 원작으로 삼았다.

○ 타이틀 롤을 부른 마리엘라 데비아(1948~)는 환갑의 나이에도 녹슬지 않는 실력을 자랑하는 놀라운 테크닉의 소유자다. 모든 음역대에서 거의 균질한 음색을 유지하며 고음의 처리 능력과 콜로라추라 테크닉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맛이 부족하다는 약점은 있으나 그녀의 정확한 노래는 모든 성악도의 귀감이 될 만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차례 내한 공연했는데 한마디로 객석을 놀라움의 도가니로 만드는 소프라노다.



Arthaus DVD 101 351 [2DVDs]

바그너: 탄호이저

로버트 갬빌(탄호이저)/ 카밀라 닐룬트(엘리자베트)/ 발트라우트 마이어(베누스)/ 로만 트레켈(볼프람)/ 필립 조르당/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화제의 연출가 니콜라우스 렌호프가 파격적으로 연출한 탄호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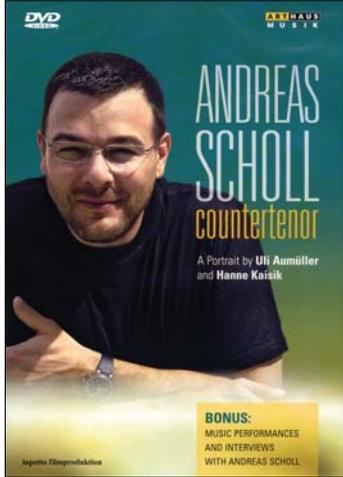
바그너는 13세기 초엽에 실존했던 미네징거인 탄호이저의 이야기와 바르트부르크의 노래경연대회와 관련된 전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로맨틱 오페라 <탄호이저>를 완성하였다. 성과 속 사이에서 방황하는 탄호이저와 각각 성과 속을 대표하는 여성캐릭터인 엘리자베트와 베누스가 펼쳐나가는 이중세 드라마는 베누스베르크의 환락, 바르트부르크 대회의 장엄함과 같은 스펙터클한 볼거리와, 순례의 합창, 저녁별의 노래, 전당의 노래, 축전행진곡과 같은 귀에 익은 명곡들이 즐비하다. 본 DVD는 2008년 바덴바덴의 축전극장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차기 파리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젊은 거장 필립 조르당이 지휘봉을 잡았다. 현존 최고의 헬덴 테너인 로버트 갬빌과 관록의 바그너 히로인 발트라우트 마이어, 그리고 신성 드라마틱 소프라노 카밀라 닐룬트가 훌륭한 절창을 들려준다. 이미 이 극장 무대에 올렸던 <파르지팔>과 <로엔그린>으로 획기적인 바그너관을 역설했던 니콜라우스 렌호프가 이번에도 시공을 초월한 파격적인 컨셉으로 이 오페라를 재해석하였다.

[보조자료]

○ 탄호이저는 13세기 초엽에 활동했던 독일의 미네징거(음유시인기사)다. 1245년에서 1265까지 그의 이름으로 된 시들이 등장하지만, 그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가 베누스의 소꿉인 베누스베르크를 발견하여 그 곳에서 환락의 세월을 보내다가 회개하고 교황 우르반 4세의 용서를 받기 위해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며, 이 전설이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의 중심내용이 되었다.

○ 197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필립 조르당은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젊은 지휘자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던 명지휘자 아르맹 조르당의 아들인 그는, 울름 주립극장에서 캐리어를 시작한 이후 베를린 슈타츠오페에서 바렌보임의 부지휘자로 장기간 활약했고, 글라인드본, 잘츠부르크, 빈 슈타츠오페, 메트, 바스티유 등의 일급 오페라 무대를 두루 거치면서 차세대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2009년부터는 파리 국립 오페라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 로버트 갬빌은 1999년 탄호이저로 베를린 슈타츠오페에 데뷔한 이래, 현존 최고의 헬덴 테너의 한 사람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 출신의 가수다. 베를린 슈타츠오페 외에도,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드레스덴 젬퍼오페, 밀라노 라 스칼라 등의 정상급 무대에서 탄호이저로 호평을 얻었다. 2003년에는 글라인드본에서 트리스탄을 노래하였고, 2005년에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피터 그라임즈를 노래하였다. 액상플로방스 페스티벌에서 사이먼 래틀/베를린 필이 진행 중인 니벨룽의 반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다.



Arthaus DVD 101 445

안드레아스 솔

'카운터테너의 카루소' 안드레아스 솔의 삶과 예술을 담은 명품 다큐

독일의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솔(1967~)은 팔세토(가성)로 노래하는 남성 고음의 진정한 르네상스를 몰고 온 슈퍼스타다. 오죽하면 <팡파르>지가 그를 가리켜 '카운터테너의 카루소'에 비유했을까. 본 영상물은 솔의 예술은 물론 약간의 생활상까지 포함한 일급 다큐멘터리다. 여러 리사이틀 실황, 모교이기도 한 스콜라 칸토룸 바실리엔시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모습, 바젤에 있는 현재의 집, 옛 교회에서 그레고리안 찬트 부르기, 자신이 직접 작곡하고 노래했으며 상당한 반향을 얻기도 한 대중적 음악들, 솔이 카운터테너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부친의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엑스트라 트랙에도 다양한 노래와 인터뷰들이 추가되어 있다. 솔은 카운터테너에게 걸여되기 쉬운 풍요로운 음식의 소유자다. 또한 달콤한 표현력과 담백한 서정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놀라운 가수다. 아무리 무겁고 심심한 곡이라도 일단 솔이 부르면 인간적 생기와 종교적 푸근함을 동시에 획득한다. 그런 진면목이 평소 그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음을 이 영상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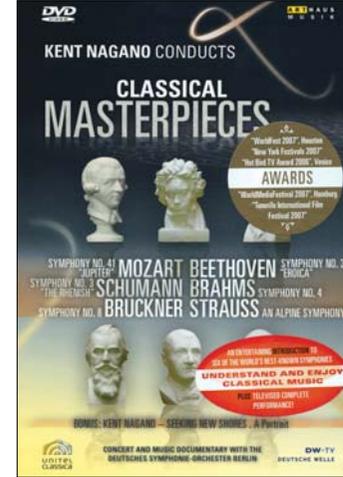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811

푸르트벵글러의 사랑

미망인 엘리자베트가 증언하는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사랑과 죽음

빌헬름 푸르트벵글러(1886~1954)는 베를린 필을 세계 최고의 악단으로 육성한 일등공신이며 20세기 독일계 지휘자의 아이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동안 지휘를 금지당하기도 했지만 자의에 의한 협조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베를린 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 필름은 푸르트벵글러보다 27세나 연하였던 두 번째 아내 엘리자베트의 인터뷰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푸르트벵글러 서거 50주년을 기념하여 이 다큐가 제작된 2004년 현재 90세가 넘었지만 놀랍도록 건강한 엘리자베트는 푸르트벵글러와의 만남과 결혼, 죽음을 명료하게 회상해낸다. 네 아이를 둔 전쟁미망인이었던 29세의 엘리자베트는 어떻게 아버지뻘 나이의 푸르트벵글러와 사랑에 빠졌을까? 게다가 첫 아내와 이별한 것은 물론 다른 여인들과 사이에 여러 사생아까지 둔 이 남자와 말이다. 음악적으로는 위대한 지휘자이기에 앞서 보수적 악풍을 견지한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 독특한 필름이기도 하다. 보너스로 무려 318분에 달하는 푸르트벵글러의 인터뷰와 리허설 자료가 MP3포맷으로 제공된다.



Arthaus DVD 101 425 [7DVDs]

클래시컬 마스터피스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브람스/ 브루크너/ R 슈트라우스
켄트 나가노/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켄트 나가노와 함께 하는 고전/낭만시대의 베스트 교향곡 선집

모차르트에서 R 슈트라우스에 이르기까지 독일계 대표 작곡가들의 대표 교향곡들을 거장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구 RSO 베를린)의 뛰어난 연주로 담은 디럭스 DVD 박스 세트. 모차르트의 주피터교향곡,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슈만의 라인교향곡,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R 슈트라우스의 알프스교향곡까지 각 작곡가들을 대표하는 교향곡 걸작들이자,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기 레퍼토리들을 알차게 담았다. 베를린의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들을 수록한 것으로, 특히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과 R 슈트라우스의 알프스교향곡에서는 무대를 가득 메운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한 위용을 한껏 즐길 수 있다. 각 DVD에는 콘서트 실황 외에도, 작품과 작곡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5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또한 올리버 벡커가 연출한 켄트 나가노의 포트레이트 영상물인 'Seeking New Shores'가 별도의 DVD로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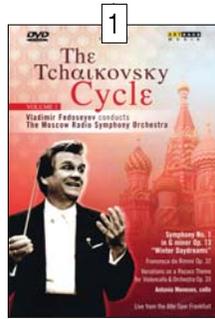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363

잔도나야: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이탈리아판 <트리스탄과 이졸데!> 20년만의 두 번째 영상물!

13세기에 살았던 프란체스카 다 폴렌타는 실존인물이다. 그녀의 부친인 라벤나의 귀도는 리미니의 말라테스타 가문과 권원지간이었다. 어렵게 화해하면서 딸을 원수 집안의 장남 조반니와 결혼시키려 하지만 절름발이인 점이 맘에 걸려 잘 생긴 그의 동생 파올로를 남편감으로 속인다. 리미니로 시집 온 다음에야 남편이 바뀐 것을 안 프란체스카는 고통 속에 시동생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다가 막내 동생의 밀고로 발각되어 두 사람 모두 복수의 칼 아래 쓰러지고 만다.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비극적인 사랑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등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비견될 만큼 유명해졌고 여러 문학, 미술, 음악의 소재로 이용되었다. 오페라로는 라흐마니노프도 작곡했지만 1914년 리카르도 잔도나이가 천재적인 극작가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비극을 바탕으로 작곡했으며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에 입각한 최후의 걸작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 영상물은 2004년 마체라타 페스티벌 실황이다. 우리시대의 빼어난 소프라노 다니엘라 데시가 공개적인 짝인 테너 파비오 아르밀리아토와 진한 애정 씬을 펼친다. 연출은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후계자인 마시모 가스파론이 맡아 고품격의 무대와 의상까지 아우르고 있다. 1984년 메트로폴리탄 실황 이후 20년 만에 새로 나온 영상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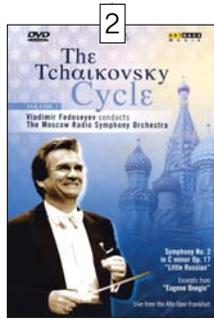
Tchaikovsky Cycle Series



Arthaus DVD 102 121

The Tchaikovsky Cycle Vo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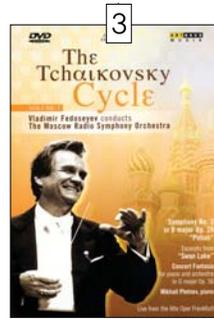
차이코프스카:
교향곡 1번 '겨울날의 백일몽',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로코코 변주곡
안토니오 메네세스(vc)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1982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안토니오 메네세스가 연주한 로코코 변주곡



Arthaus DVD 102 123

The Tchaikovsky Cycle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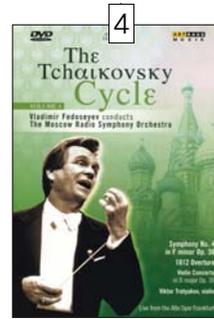
차이코프스카:
교향곡 2번 '소러시아', 에프게니 오네긴 발췌
리디아 세르니흐(sop), 알렉산더 네나도프스카(bar)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교향곡 2번과 본고장 일곱 가수들이 노래한 에프게니 오네긴 하이라이트



Arthaus DVD 102 125

The Tchaikovsky Cycle Vo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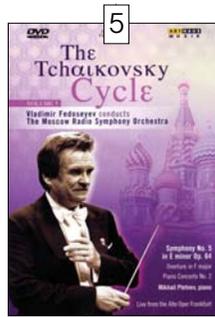
차이코프스카:
교향곡 3번 '폴란드', 백조의 호수 발췌, 콘체르토 판타지아
미카엘 플레트네프(pf)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페도세예프의 향토색 짙은 연주와 플레트네프의 화려한 개인기



Arthaus DVD 102 127

The Tchaikovsky Cycle Vo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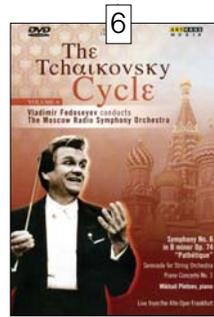
차이코프스카:
교향곡 4번, 1812년 서곡, 바이올린협주곡
빅토르 트레차코프(vn)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호쾌한 교향곡 4번과 1812년 서곡, 트레차코프의 열정적인 바이올린협주곡



Arthaus DVD 102 129

The Tchaikovsky Cycle Vol.5

차이코프스카:
교향곡 5번, 서곡 F장조, 피아노 협주곡 2번
미카엘 플레트네프(pf)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페도세예프와 플레트네프의 강렬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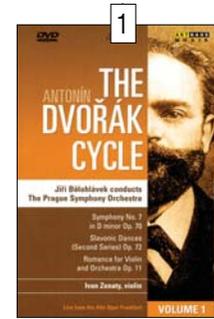


Arthaus DVD 102 131

The Tchaikovsky Cycle Vol.6

차이코프스카:
교향곡 6번 '비창', 현을 위한 세레나데, 피아노 협주곡 1번
미카엘 플레트네프(pf)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페도세예프의 비창 교향곡, 플레트네프의 피아노협주곡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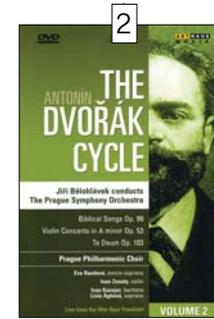
Dvorak Cycle Series



Arthaus DVD 102 135

The Dvarak Cycle Vo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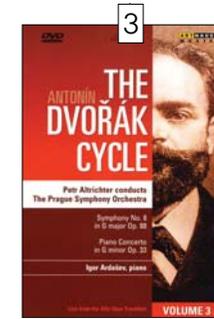
드보르작:
교향곡 7번, 슬라브 춤곡 2권, 로망스
이지 벨로홀라벡이 지휘하는 드보르작 교향곡 7번



Arthaus DVD 102 137

The Dvarak Cycle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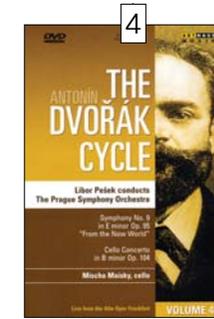
드보르작:
성경의 노래들, 테 데움, 바이올린협주곡
에바 란도바(ms)
이반 제나티(vn)
이지 벨로홀라벡
프라하 심포니
로맨틱 협주곡의 걸작인 드보르작의 바이올린협주곡



Arthaus DVD 102 139

The Dvarak Cycle Vo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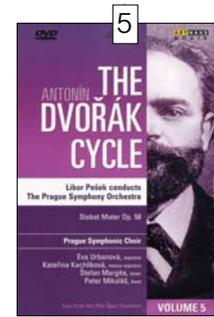
드보르작:
교향곡 8번, 피아노 협주곡
이고르 아르다세프(pf)
페트르 알트리히터
프라하 심포니
드보르작의 아름다운 교향곡 8번과 숨겨진 걸작 피아노협주곡



Arthaus DVD 102 141

The Dvarak Cycle Vo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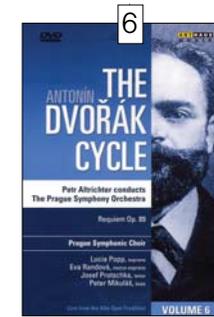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첼로협주곡
미샤 마이스키(vc)
리보르 페섹
프라하 심포니
리보르 페섹의 신세계 교향곡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협주곡



Arthaus DVD 102 143

The Dvarak Cycle Vol.5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Op.58
에바 우르바노바(sop)
카테리자나 카홀리코바(ms)
슈테판 마르기타(te)
페테르 미콜라슈(bass)
리보르 페섹
프라하 심포니와 합창단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냈던 아버지의 절절한 비감을 담은 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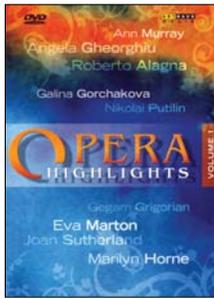
Arthaus DVD 102 145

The Dvarak Cycle Vol.6

드보르작:
레퀴엠 Op.89
루치아 포프(sop)
에바 란도바(ms)
요제프 프로차카(te)
페테르 미콜라슈(bass)
페트르 알트리히테르
프라하 심포니와 합창단
세계적인 소프라노 루치아 폼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상물

날이 갈수록 방대한 오페라 영상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아트하우스가 가수 중심으로 편집한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DVD 3장으로 제공한다. 이 시리즈의 가장 환영받을만한 특징은 각 노래마다 출연한 가수가 직접 해설을 들려준 다음에 해당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모두 새 밀레니엄 이전의 자료들이지만 엄선된 명장면들만 뽑아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가수들이 말하는 모습과 노래를 동시에 곁들인 덕분에 귀한 자료로 재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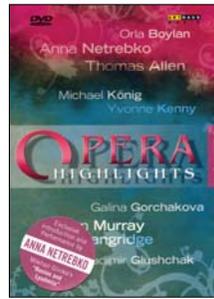
Opera Highlights Series



Arthaus DVD 102 047

Opera Highlights Vol.1 가수 중심으로 편집한 아트하우스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제1탄

제1집에는 11개의 장면이 수록되었는데, 여걸형 메조소프라노의 대명사 마릴린 혼의 <광란의 오를란도>, 영국의 보석같은 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신데렐라>, 20세기를 대표하는 벨칸토 소프라노 조운 서덜랜드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노르마>, <일 트로바토레>, 지금도 오페라계의 환상 커플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로베르토 알라나와 안젤라 게오르규 부부의 <사랑의 묘약>,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명가수들인 갈리나 고르차코바, 니콜라이 푸틸린, 게감 그리고리안의 <운명의 힘>, 헝가리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에바 마르톤의 <라 조콘다>를 만날 수 있다. 모두 이탈리아 오페라들이다.



Arthaus DVD 102 049

Opera Highlights Vol.2 가수 중심으로 편집한 아트하우스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제2탄

제2집에는 16개의 풍부한 장면이 제공되는데, 이지적인 소프라노 이본 케니가 바로크 오페라 <요정 여왕>와 <줄리오 체자레>를, 영국의 보석 앤 머레이가 바로크 오페라 <아리 오단테>와 <세르세>를 영어로, 마린스키 극장을 이끌었던 라리사 디아코바, 블라디미르 오그노벤코, 콘스탄틴 플루즈니코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안나 네트렙코가 <루슬란과 루드밀라>를, 오를로 보일란, 블라디미르 글루쉬차, 미카엘 퀴니히가 현대적 연출의 <에프게니 오네긴>을, 영국의 국민 바리톤 토마스 알레이 <영리한 암여우>와 <빌리 버드>를, 마린스키 극장의 스타 갈리나 고르차코바가 <불의 천사>를, 앤 머레이의 남편인 필립 랭그리지가 <피터 그라임즈>를 노래한다. 제2집은 오페라의 주류가 아닌 제3국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Arthaus DVD 102 051

Opera Highlights Vol.3 가수 중심으로 편집한 아트하우스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제3탄

제3집에는 위대한 가수 6명이 노래하는 단 여섯 개의 대표적 장면만을 엄선했다. 호주 출신의 이지적인 소프라노 이본 케니는 <코지 판 투테>를, 20세기 후반의 가장 대표적인 바그너 가수인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는 역시 최고의 바그너 테너 르네 콜로와 함께 <탄호이저>를, 웨일즈 출신의 놀라운 베이스바리톤 브린 터펠은 과기스러운 성서오페라 <살로메>를, 보이쉬한 스타일로 늘 관심을 끌었던 메조소프라노 브리기에 파스벤더는 <엘렉트라>를, 뉴질랜드 출신의 우아한 소프라노 키리 테 카와와는 오페라를 다룬 오페라 <카프리치오>를 부른다. 제3집은 모두 오스트리아와 독일 작곡가의 오페라들이다.



Arthaus DVD 100 331

크리스틴 셰퍼

현역 성악가들 중 가장 지적인 가수로 손꼽히는 크리스틴 셰퍼의 첫 번째 영상물

슈만과 쇤베르크라는 상반된 프로그램을 유닉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에서 셰퍼는 여성 가수들이 부르던 의외로 무미 건조해지는 이 곡을 표정이 명확한 이지적인 해석을 토대로 투명하고 명료한 음색과 정확한 디క్ష너리로 펼쳐나감으로써 자신감 넘치고 완성도가 매우 높은 '빠어난' 연주를 들려준다. 곡의 사이사이에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들과 작품에 관한 해석, 심지어는 목욕 장면이나 NG장면들까지도 가식 없이 섞어 넣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 과정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올리버 헤르만이 감독한 <One Night, One Life>는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뱀에로>를 토대로 연출한 전위적인 영상물인데, 현존 최고의 쇤베르크 해석자인 뱀에로 볼레즈가 지휘하는 앙상블 앙파르공평뽕랭의 정교한 반주를 배경으로 날카로운 감각과 현대적인 미감으로 세련되게 묘사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 시대 현대 음악 해석의 한 완결된 경지를 보여준다.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뱀에로>



Arthaus DVD 100 707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금세기 최고의 성악가 커플, 알라나와 게오르규

성악계 사상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녔으며, 우리나라 연주회 사상 가장 비싼 연주회로 화제를 모았던 로베르토 알라나와 게오르규 커플을 이번에는 영화와 오페라를 결합한 새로운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만난다. 연출을 맡은 바버라 윌리스 스위트는 체코 초비코프에 자리한 중세시대 성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세익스피어와 구노가 만들어낸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오페라 전곡의 지루함을 피하고자 극 전개상 중요한 부분들을 70분 정도의 시간으로 과감하게 줄였으며, 주연을 제외한 배역에 성악가가 아닌 배우들을 기용하여 더욱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답답한 오페라 무대를 벗어나 아름다운 체코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카메라 워크는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한 앵글을 통해 곡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돌비 디지털 5.1 채널은 물론이고 DTS5.1 채널까지 지원되는 뛰어난 음질은 금세기 최고의 성악가 커플인 알라나와 게오르규의 절창을 감상하는데 더 없는 만족감을 주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심포닉 댄스, 중

세몬 비쉬코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대표 관현악걸작들

레닌그라드 출신의 유재 지휘자인 세몬 비쉬코프는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열렬한 추종자이다. 그는 이 DVD를 통해 현재 자신이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쾰른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라흐마니노프의 대표 관현악 걸작들을 다각도에서 조망하였다. 애드가 앨런 포의 시를 텍스트로 취한 칸타타 풍의 작품인 '중'과 팝 가수 에릭 칼먼이 3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에 가사를 붙여 부른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으로 더욱 유명해진 교향곡 2번, 그리고 작곡가 만년의 대표 관현악걸작인 '심포닉 댄스'의 전곡 연주 영상과 함께 '중'과 '심포닉 댄스'의 리허설장면 사이사이로 이들 두 작품의 작곡배경과 라흐마니노프의 삶과 음악을 다룬 음악다큐멘터리의 가장 엔리크 산체스 란슈의 다큐멘터리 영상 두 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라흐마니노프 애호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값진 영상물이 될 것이다.



Arthaus DVD 101 439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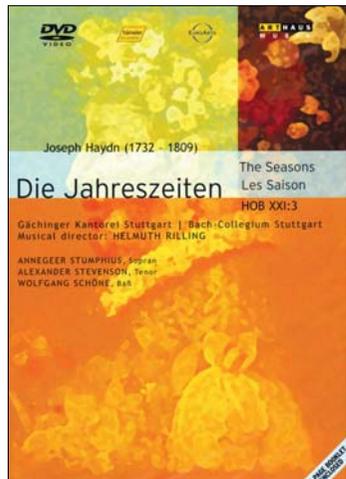


Arthaus DVD 100 047

푸치니: 라 보엠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커플을 이룬 바로 그 <라보엠>의 유일한 실황!

1935년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나란히 태어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미렐라 프레니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스승도 같은 사람이며 오페라 무대에도 자주 같이 섰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파리의 가난한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푸치니의 <라보엠>이다.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등 주옥같은 아리아는 물론 3막에서 로돌포와 미미가 헤어지는 장면, 4막의 미미의 죽음은 모든 이의 콧등을 시큰하게 만든다.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노래한 <라보엠> 녹음은 카라얀이 지휘한 전설적인 데카 녹음부터 해적판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정규 영상물로는 198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된 본 자료가 유일하다.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아직 오십대 초반으로 여전히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높은 자부심이 수준 높은 공연을 이끌어내고 있다. 마르첼로 역에 지노 켈리코, 콜리네 역에는 프레니의 두 번째 남편 니콜라이 가우로프가 가세한 최강의 출연진이다. 지금도 가장 활발한 여류 오페라 연출가로 맹활약중인 프란체스카 잠벨로가 연출한 프로덕션이다. 부디 오페라 영상자료의 진정한 고전을 놓치지 마시라.



Arthaus DVD 101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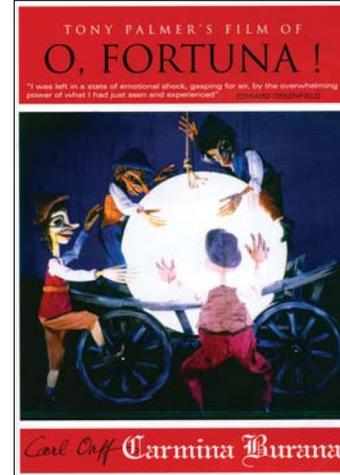
하이든: 오라토리오 '사계'

아네게르 슈툼피우스(sop), 알렉산더 스티븐슨(te), 볼프강 쇤(bass)/ 헬무트 릴링/ 게링거 칸토라이 슈투트가르트 & 바흐-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

시각과 청각으로 함께 느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
'천지창조'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하이든은 여기서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또 다른 오라토리오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사계'다. '천지창조'가 제목과 같은 스펙터클한 미증유의 이벤트를 장엄하게 표현했다면, '사계'는 풍요로운 전원생활의 기쁨과 자연에 깃든 절대자의 섭리를 하이든 특유의 경쾌한 필치로 사랑스럽게 그려낸 걸작이다. 초로의 농부 지몬(베이스)과 그의 딸 한네(소프라노), 그리고 그녀의 애인인 젊은 농부 루카스(테너)가 등장인물이며, 특별한 스토리의 전개 대신 계절에 따라 변화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농사, 사냥, 수확과 같은 전원생활사를 세 독창자들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그리고 효과적인 합창을 통해 변화무쌍하게 음악으로 표현해 내었다. 바흐가 남긴 방대한 칸타타 전집녹음을 혼자 힘으로 최초로 완결했던 장본인인 지휘자 헬무트 릴링은 고전, 낭만시대의 종교합창곡들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왔다. 본 DVD는 1992년 1월에 녹화된 것으로, 연주장면 틸름이 각 계절의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영상들이 삽입되었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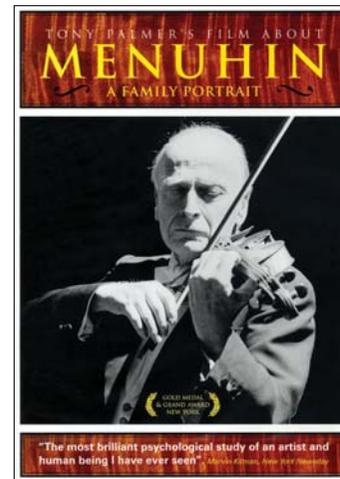


Tony Palmer's DVD TPDVD118

토니 팔머의 칼 오르프 다큐멘터리: 운명의 여신여!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한 천재작곡가 칼 오르프의 음악과 삶

<카르미나 부라나>는 중세 수도원에 전승된, 그러나 사랑에 대한 세속적 가사를 날카로운 리듬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의 합창과 독창용으로 만든 것으로 20세기의 가장 대중적 명곡의 하나로 꼽힌다. 작곡자는 칼 오르프(1895~ 1982) 그는 7살에 소설을 쓰고 십대에 일본어와 불어로 오페라를 작곡한 신동이었다. 클래식 다큐멘터리의 대표감독인 토니 팔머가 2004년에 완성한 이 자료는 <카르미나 부라나>뿐 아니라 오르프의 특징을 드러낸 일련의 무대음악을 풍부하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로 퍼진 그의 리듬중심 음악교육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오르프의 여인들, 즉 네 아내 중 인터뷰 당시 생존해 있던 세 사람(그중에는 독일 역사상 최고의 여류작가인 루이제 린저도 포함된다), 그리고 첫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유일한 혈육인 딸의 증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팔머는 냉정한 시각을 견지한다. 놀라운 상상력의 소유자였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오르프의 성향, 그런 나머지 나치 시절에 위기에 몰린 친구 쿠르트 후버가 처형될 때까지 방치했던 약점까지도 집요하게 들추어낸다. 오르프를 이해하는데 단연 최고의 자료다.



Tony Palmer's DVD TPDVD120

메뉴힌 패밀리 포트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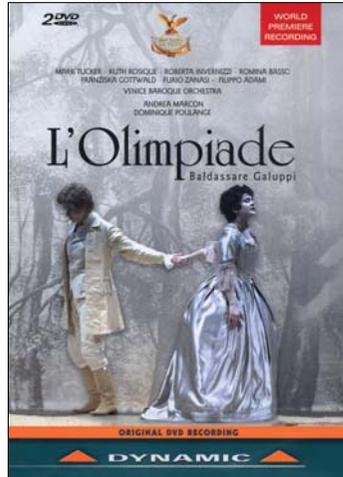
영상으로 옮겨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힌의 뒷이야기들

예후디 메뉴힌은 6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음악계의 사랑을 받았다. 1919년 뉴욕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3세부터 정식 바이올린레슨을 받으며 신동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었다. 1923년 7세의 나이로 음악계에 깜짝 등장하였으며, 루마니아 출신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예네스쿠를 사사하면서 보다 연주의 깊이를 더해 나갔다. 그는 풍족한 환경과 천부적인 재능으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아동기와 청년기를 보냈지만, 그 이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고통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음악다큐멘터리의 거장 토니 팔머는 베를린, 드레스덴, 빈, 모스크바, 뉴욕, 샌프란시스코, 스위스 등으로 이어지는 메뉴힌의 족적을 따라 그와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뒷이야기들을 잔잔하게 카메라에 옮겼으며,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두 여동생 헤르미타와 알타,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두 번째 부인 다이애나 골드와의 여러 이야기들을 담은 미공개 영상자료들을 듬뿍 수록하고 있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DVD 33545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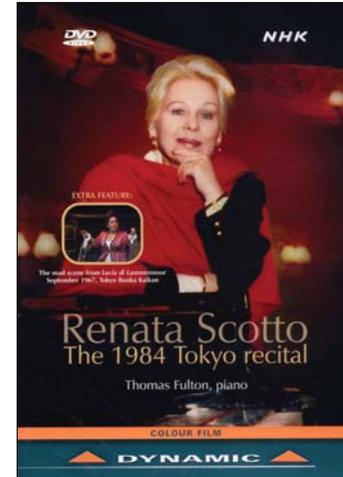
갈루피: 올림피아데

그리스 고대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18세기 최고의 인기 오페라

메타스타시오는 18세기 오페라 세리아를 상징한 대본작가다. 사각관계로 정형화된 패턴 속에 다양한 방식의 아리아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가 대본을 하나 쓰면 수십 명의 작곡가가 달려들곤 했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올림피아데>는 100편 이상의 오페라가 쏟아진 최고의 인기작이었다. 두 쌍의 꼬여버린 사랑, 여기에 신분을 속여 올림픽에서 사기 우승한 사건이 맞물리면서 위기를 맞지만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맺는다. 동일한 대본으로 칼다라, 비발디, 페르골레지, 갈루피의 것이 유명한데, 본 영상물은 본디 오페라 부파의 대가이자 미켈란젤리의 연주로 잘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의 작곡자인 발다사레 갈루피의 작품을 2008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재연한 실황이다. 무려 일곱 명의 주역급 출연진 중 초연 당시 카스트라토가 맡았던 두 남성 주역은 모두 여성 가수가 불렀다. 갈루피의 숨씨는 헨델이나 비발디에 전혀 못지않으며 이탈리아 바로크 당대 연주의 선두주자 안드레아 마르코나 베네치아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고품격 반주로 뒷받침한다.

[보조자료]

○ 메가클레는 아테네의 운동경기 선수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리스테아가 워낙 지체 높은 클리스테네의 딸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에는 장벽이 있다. 메가클레의 친구 리치다는 크레타 왕자일 뿐 아니라 메가클레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기에 일종의 주종(主從)관계가 성립하는 우정이다. 한편 아르케네는 한때 리치다의 연인이었지만 크레타 왕의 명령으로 헤어져 지금은 양치는 처녀로 숨어 살고 있다. 극의 갈등은 리치다가 아리스테아와 친구의 관계를 모른 채 그녀에 반하면서 시작된다. 리치다는 메가클레에게 자기 이름으로 올림피아데에 출전할 것을 요구하는데, 클리스테네가 올림피아데 우승자와 자기 딸을 혼인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메가클레는 우승하지만 그 대가로 친구에게 연인을 빼앗길 상황에 빠졌다는 점, 그런데도 친구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할 처지도 아닌 것을 비판하여 강물에 투신하지만 한 어부에게 구출된다. 한편 리치다는 남의 신성한 올림피아데를 모독한 것이 발각되고 친구의 살해를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이 언도된다. 아리스테아는 뒤늦게 메가클레의 진실을 알고 역시 체포된 연인에 대한 선처를 부친에게 호소하지만 거절당한다. 마지막 반전의 열쇠는 아르케네가 쥐고 있다. 그녀는 옛 연인 리치다가 다른 여인을 사랑한 것에 분노하여 올림피아데 사기극을 폭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리치다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나 그로부터 사랑의 정표로 받았던 목걸이를 클리스테네에게 제시한다. 클리스테네는 그 목걸이가 신탁의 예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띄워 보냈던 자기 아들 것임을 알아본다. 이로서 리치다는 아리스테아의 쌍둥이 오빠임이 밝혀지고 모든 갈등이 일시에 풀리게 된다.



Dynamic DVD 33607

레나타 스코토 1984년 도쿄 리사이틀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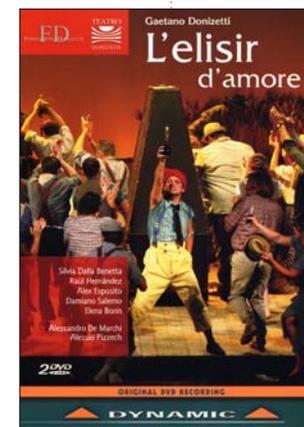
'디바 이상의 디바' 레나타 스코토의 완벽한 리사이틀

레나타 스코토(1934~)는 플라시도 도밍고로부터 '디바 이상의 디바'라는 찬사를 받았던 위대한 소프라노다. 그녀의 풍부한 표현력과 뛰어난 연기력은 마리아 칼라스에 비견될 정도이며(칼라스는 스코토의 공연을 보고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다) 음악적인 정확성은 누구나 혀를 내두를 정도의 완벽주의자이기도 하다. 최근엔 오페라 연출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2007년 가을 시카고 리릭 오페라의 <라보엠>에서는 리허설에 빠졌다는 이유로 천하의 안젤라 게오르규를 쫓아냈을 만큼 대단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 영상물은 1984년 가을, 여전히 최고의 성가를 구가하고 있던 50세의 스코토가 11년 만에 도쿄를 방문하여 가진 리사이틀 실황이다. 이탈리아 고전가곡에서도 완벽한 노래는 들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리사이틀 레퍼토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정도의 대곡인 베르디의 <돈 카를로>중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여'를 감동적인 절창으로 소화한다. 오래 전의 자료지만 불과 몇 년 전의 실황으로 착각할 만큼 화질과 음질도 뛰어난 편이다. 보너스 트랙에 1967년 도쿄에서 공연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중 '광란의 장면'이 제공된 것은 형언할 수 없이 큰 선물이다.

Also Available



Dynamic DVD 33567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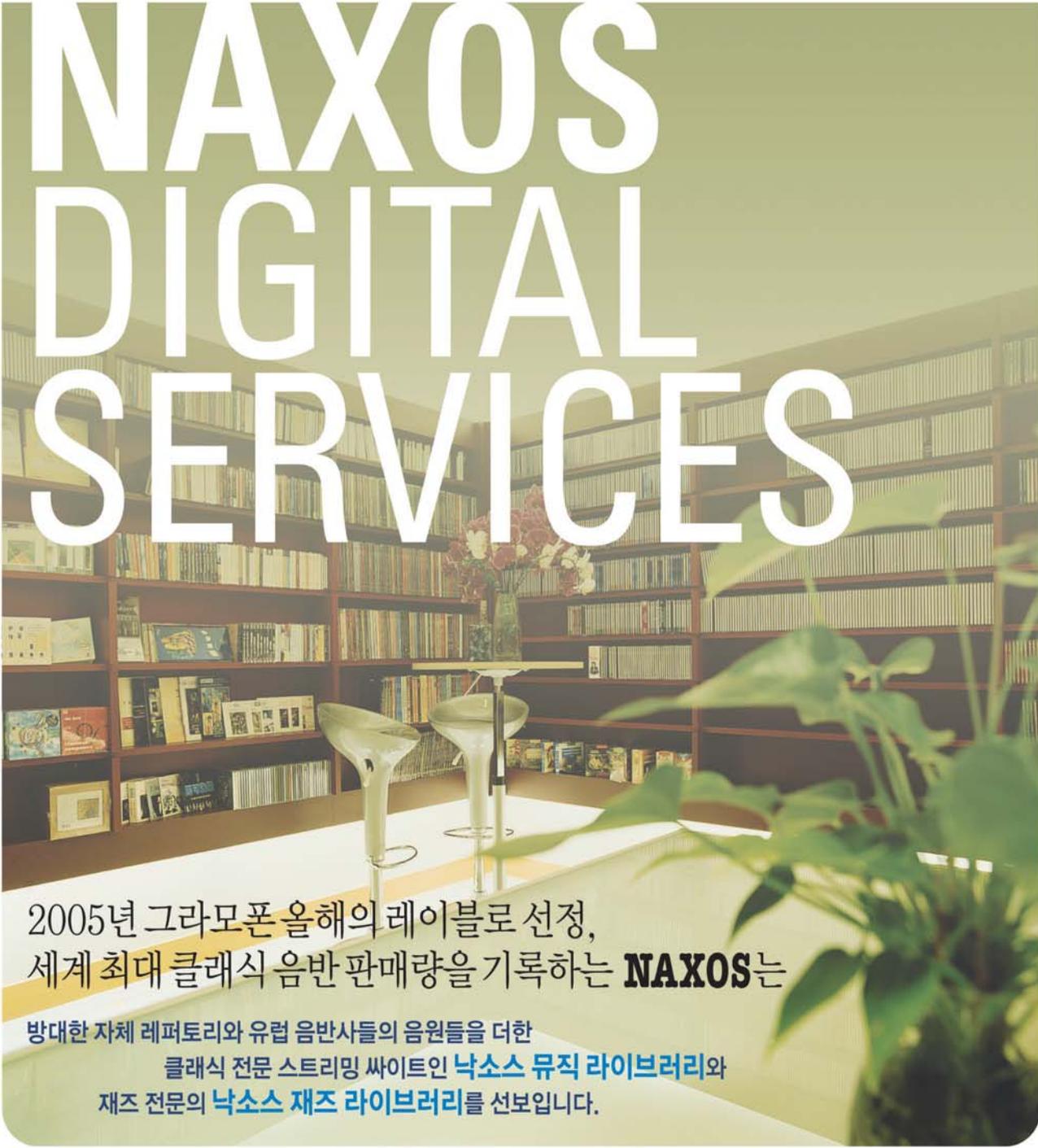


Dynamic DVD 33577



Dynamic DVD 33581
[2DVDs]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30,000개 음반 / 43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7가 51-37 이테크빌리 1110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co.kr



최고 락 뮤지션들의 음악 DVD를 적극적으로 발매해온
이글 락 엔터테인먼트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소장가치 만점의

블루레이[Blu-ray] 클래식 락 시리즈 ;

- ELVIS COSTELLO: Club Date
- BLACK CROWES: Live at the Fillmore
- ALICE COOPER: Montreux 2005
- TOTO: Live in Amsterdam
- YES: Live at Montreux 2003
- SANTANA: Hymns for Peace
- DEEP PURPLE: Live at Montreux 2006
- QUEEN: Live at Montreal
- ZZ TOP: Live from Texas
- KORN: Live at Montreux 2004
- LEGENDS: Live at Montreux
- JETHRO TULL: Live at Montreux
- VARIOUS ARTISTS: Strat Pack
- STYX: One with Everything
- TORI AMOS: Live at Montreux 1991/92
- RAY CHARLES: Live at Montreux 1997
- THE CURE: Trilogy
- JEFF BECK: Live at Ronnie Scotts
- THE WHO: Live at the Isle of Wight
- PAUL RODGERS: Live in Glasgow
- ASIA: Live in Asia
- GARY MOORE & FRIENDS:
One night in Dublin, Tribute to Phil Lynott

세계 정상급 락 아티스트들의
공연실황과 음악 타이틀을
HD 고화질 디스크로 즐긴다!

Blu-ray

절찬리
판매중



표지사진
2008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DVD

〈아울로스뉴스〉 2009년 2, 3월호
통권 제 36호 발행 : 2009년 4월 5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